



시론

퀴어축제를 바라보며....



최해근 목사
(통고메리교회)

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16년 동안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비율이 거의 두 배 늘었습니다. 2001년에는 조사대상 17%가 동성결혼에 찬성하였던 반면 2017년 조사에서는 34%가 찬성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최근 1년 사이에는 오히려 1%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35%가 찬성했던 반면 2017년 올해에는 1%가 줄어든 34%가 동성결혼에 찬성했습니다.

비록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찬성비율이 낮지만 동성애자들을 향한 차별대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 비율인 9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한국인들은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2/3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직장이나 취업기회를 주는 것을 놓고 차별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90%에 이르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임이 밝혀져 해고된다면 이런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81%가 타당하지 않다고 대답함으로써 동성결혼도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대우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는 분명한 여론의 표현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스라엘에서 나온 최근의 자료는 한국보다 훨씬 더 동성애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자들의 79%가 동성결혼이나 혹은 동성시민결합(civil union)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국민들의 정서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동성결혼이나 시민결합을 입법화시키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관점을 확인해보면 너무나도 극과 극입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태어나면서 이성(理性)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동성(同性)에 대해 더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인정하고 사회제도에서도 수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동성애(同性愛)의 선택이 후천적인 것이 아닌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비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동성애를 거부하는 분들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탄의 책략으로 정리하면서 지금의 교육제도와 환경이 동성애를 더 확장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적어도 신앙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결혼에 대해 신구약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지향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폭력적인 기질이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폭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우리 속에 선천적인 어떤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야할 삶의 방향을 정해 걸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갖는 고통과 아픔을 비동성애자들이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 자료와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동성애자들의 삶 속에 성적인 혼돈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인해 굶어지고 깨어진 육체의 욕망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내 아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 창조주가 주신 그 기준을 옮기거나 수정하는 것은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언젠가 죄로 인해 굶어진 이 땅의 아프고 지친 삶을 끝내고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잠시 머물렀던 세상과 조화하기 위해 영원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깨고 뒤틀리게 만든 그 행위는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부끄러운 인생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도 생각해 봅니다. 동성애에 대한 견고한 성경적 자세를 취한다면 똑같이 동성애자들을 향한 자세도 성경적인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발각되어 죽음의 순간에 섰던 여성을 똑같은 죄인으로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의 길을 열어 주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동성애자들 역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관계없이 그들 모두는 용서받고 치유 받아야 할 죄인의 한 부류인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thec Choi82@yahoo.com

무언가를 배울 땐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NY타임스, 스미스여대에서 실시하는 “실패학” 신설 이유와 유익 소개(1)

성공과 실패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정의하는 절대 기준이 아니다. 단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생이라는 범위에서 양 끝에 놓인 요소일 뿐이다. 따라서 당신에 대한 타인의 견해는 시대에 따라 타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보아왔다.

명문 여자대학으로서 유명한 스미스 대학은 작년부터 “실패

학하기”과목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가꾸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실패가 당연하다는 것이 바로 동 과목을 신설한 이유다. 따라서 뉴욕타임스는 이를 보도하고 있는데, 3회에 걸쳐서 연재한다(On Campus, Failure Is on the Syllabus: A Smith College initiative called “Failing Well” is one of a crop of university programs that aim to help high achievers cope with basic setbacks).

지난해 스미스 대학(Smith College) 가을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이어 얼마 전 학기말 시험 기간에도 학교 측은 캠퍼스 본부 근처를 지나는 학생들에게 꽤 낯선 영상을 하나 틀어놓았다. 다른 학생들이 각자 겪은 좌절의 실패담을 털어놓는 내용이었다.

“대학 와서 처음 치른 쓰기 시험에 낙제했어요.”

한 교수도 자신의 실패담을 보냈다. 한 유명한 영문과 교수는 낙제점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성적표 이야기를 했다.

“2학년 때였죠. 완전히 바닥을 깔았어요. 한 학기에 들은 모든 과목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F를 맞았어요. 그



탄력성(resilience)... 실패에 굴하지 않는 오탁이로 길러내기 위한 노력

“실패 통해 교훈 얻고 마침내 성공하는 것” 스타트업 세계선 명예훈장

야말로 초토화된 성적표였죠. 낙제했습니다.”

미국 문학을 연구하는 한 학자는 자신이 쓴 시 “초콜렛 카라멜”에 관해 이야기한다. “여러 문예지에 정말 수없이 이 시를 보내고 또 보냈는데, 지금까지 총 21번 거절당했어요.”

별 의미 없는 의식이 아니다. 이 영상은 여자대학교인 스미스 대학이 공식적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험만 보면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당연하고, 어쩌면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 대표를 도맡았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겪은 가장 처참한 실패나 시련을 친구들에게 공개할 수 있겠느냐 묻은 뒤 이들의 동의하에 촬영해 제작한 영상이다.

“정말 힘들었어요. 캠퍼스 전체에 온통 치열한 경쟁밖에 없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모두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실패담을 보고 있으니 당장 저부터 ‘그래, 다 괜찮아. 누구나 다 힘든 건 마찬가지야. 나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학년에 올라가는 20살 캐리 리 랭카스터의 말이다.

이 영상은 스미스 대학이 선보인 새로운 프로그램 “잘 실패하는 법”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실패라는 단어에 낙인찍힌 과도한 오명을 벗겨내는 것”이다. 사기꾼 신드롬에 관한 워크숍, 완벽주의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부터 모든 학생의 64%가 B- 이하의 성적을 받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까지, 학교 측은 요즘 유행어인 “탄력성(resilience)”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학생들을 실패에 굴하지 않는 오탁이로 길러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미스대학교 대학생문화원의 리더십 함양 전문가이자 비공식적으로는 “실패 마스터”로 꼽히는 레이첼 시몬스는 이렇게 말한다.

“배움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배울 땐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는 자명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왔습니다. 사실 배움의 과정에서 실패는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스미스 대학교처럼 좋은 학교에 합격하려면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범생으로 살았을 학생이 많겠죠. 이 학생들에게는 실패가 무척 낯설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 직면하면 누구나

무척 힘겨워 하죠.”

시몬스 본인이 20대 초반에 아주 권위 있는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날려버렸고, 그 때문에 대학교 총장님으로부터 우리 학교 명예에 먹칠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 실패담을 거의 10년 가까이 주변에 말하지 않고 살았던 시몬스 씨는 학생들의 마음이 어떨지 잘 안다. 그녀는 말한다. “몇 년 동안 저는 그 실패의 그림자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시몬스가 관장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이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실패증서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패 증서란 쉽게 말해, 실패해도 좋다는 허가증 같은 것으로 이런 뜻이 담겼다.

“연애나 친구 사귀기를 포함한 인간관계, 글쓰기, 시험, 과외활동, 아니면 대학 생활과 관련해 내린 그 어떤 결정이든 몇 번이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2017년 항공학과 신설

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

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중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하는 크리스천들 있다

〈1면에서 계속〉

중동 교회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가르침이 콥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콥트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신앙을 다짐하고 또 서로 격려하기 위해 함께 나누고 있는 시 한편(A Message to ISIS)이 소셜 미디어에서 퍼지고 있다. 그 시의 일부이다:

“당신은 중요하고 죽이지만, 결코 그것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IS여, 나의 아버지의 종교는 당신을 찌르는 무기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의 종교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의사를 보냅니다. 내일 당신이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민야의 버스 매복 공격은 지난 다섯 달 동안에 일어난 네 번째 대량살상 테러였다. 이 시의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처럼 기독교의 이상을 지켜낸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사제들, 주교들, 국회의원이 더 이상 존경 받지 못합니다.” 민야 희생자의 친구인 미나 아델이 가디언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제 아무도 그들이 하는 위로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지리가 납니다.”

결국 참담한 현실 앞에서 콥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기독교 원리들을 지켜나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벌건 대낮에 IS가 사람들을 살해해도, 이집트 정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고, 사랑과 용서를 토대로 인내로 담대하게 맞서나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집트에서는 콥트 크리스천들을 이집트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근 레바논이 겪었던 시민전쟁과 같은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바로 이점을 IS는 노리고 있다.

베이루트 아랍침례신학교 학감이자, 켈리포니아 풀러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마틴 아카드 교수는 “명예, 수치 그리고 보복의 문화 안에서 보복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강건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콥트 크리스천들을 칭송한다.

이처럼 이집트 콥트 크리스천

들은 “의로운 분노” 즉 분노, 보복으로 맞서지 않고 용서라는 신앙으로 IS의 테러에 맞서고 있다.

한편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는 피란을 떠났던 크리스천들은 더 많은 극단주의를 우려해 돌아가려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IS가 몰락한 후에도 이슬람주의 무장단체가 다시 부상할까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았던 콥트교회 바닥에 IS에 의해 훼손된 예수 사진. IS는 2년 동안 이 지역에서 기독교의 모든 상징들을 없애려고 광분했다(뉴스위크).

두려워하는 크리스천들이 많기 때문이다.

3년 전 이라크 북부 마을 카라코시에 아들이 내릴 때 사바흐 페트루스 세마는 자신의 대가족을 픽업트럭에 태워 마을에서 떠나보냈다. 그들이 사라진 뒤 그는 AK 소총 2정을 손에 쥐고 박격포 소리가 가까워지는 동안 자리를 지켰다.

몇 km 떨어진 곳에서 급진 무장단체IS가 진격해오고 있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는 마을 주민이 거의 모두 떠나갔다. 전방에서 후퇴하며 공황에 빠진 군인들이 물결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세마는 이제 피신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고통스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살던 집과 교회, 모든 것을 남겨놓았다. 우리가 챙긴 것은 옷가지, 신분증 그리고 약간의 돈뿐이었다.”

카라코시는 2014년 IS가 점령한 이라크 북부의 수십 개 마을 중 하나였다. 지난 3년 사이 시아파 민병대, 쿠르드군 병력, 미군 공군력의 도움으로 이라크 군이 재집결해 모술 중부 등 일부만 남겨두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무슬림 주류 마을에선 재건이 시작됐지만 카라코시와 기타 크리스천 거주지에는 주민이 거의 돌아

오지 않았다. 대다수가 더 많은 전쟁과 극단주의를 우려하며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한다. 지금은 예르빌의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세마는 “이라크에서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며 “IS가 쫓겨난 뒤 더 지독한 또 다른 단체가 등장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오늘날 카라코시는 유명도시처럼 보인다. 대로를 따라 잡초와 야생화가 무성하게 자라났다. 파괴한 정적 속에 기독교 민병대

니네베 평원 부대(Nineveh Plains Unit) 군인들을 가득 실은 트럭만 가끔씩 지나간다.

카라코시는 철저히 파괴됐다. 어디를 둘러봐도 건물들이 불길에 검게 그을려 있다. IS 대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교회에선 성상들을 파괴하고 그림 속 예수님과 마리아의 얼굴을 칼로 그었다. 마을 곳곳에 부비트랩과 급조폭발물(IED)을 설치해 일부는 아직도 남아 있다.

앗시리아인 기독교 정당인 ‘베스나린전국연합’의 유시프 야쿠브 대표는 IS가 마을을 사람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이라크의 기독교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본다. 야쿠브는 예르빌에서 전화로 “카라코시뿐 아니라 다른 기독교도 마을에서도 모든 집을 남김없이 파괴하려 했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카라코시가 얼마나 파괴됐는지 감안하면 돌아가려는 주민이 거의 없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더 심하게 파괴된 다른 무슬림 마을들도 IS가 빠져나간 뒤 몇 달 사이 되살아났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모술에서도 한때 셔터를 내렸던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고 텅텅 비었던 동

특히 아이디어를 기술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실패에도 적잖은 의미를 부여한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마침내 성공하는 것”이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대단히 명예로운 훈장처럼 여겨진다. 관련 블로그나 테

네가 지금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지난 4월 모술 서부 와디 하자르 동네를 탈환한 한 달 뒤에 찾아갔을 때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총성과 폭발음이 들리는 상황에서도 상점주들은 검게 그을린 상점 외부에 새로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

최근 몇 달 사이 카라코시 주민이 조금씩 되돌아오기 시작했지만 대다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IS의 공격 전 이곳 주민은 5만 명이었다. 지금은 180가구 정도만 거주한다. 기독교도들은 일부 무슬림 이웃이 IS의 부상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실을 걱정한다. 라티프 소령이라고만 밝힌 니네베 평원 부대원은 “IS 지지자들이 아직도 많다”고 말했다. 이들 민병대원들은 지역 내의 잠복세포 조직 소탕을 위해 주기적으로 기습작전을 펼친다.

최근 몇 달 사이 IS 잠복세포 조직은 모술과 키르쿠크 안팎뿐 아니라 수도 바그다드에서 공격을 벌여왔다. 세마는 “IS를 지지했던 사람은 모두 두렵다”고 말했다. “그들은 세뇌 당했다. 아이들까지 살인 교육을 받았다. 치안이 존재한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카라코시에는 우리를 보호해줄 법이 없다.”

이라크의 상당수 기독교도들은 자신들이 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IS는 2003년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타도한 이후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위협해온 많은 극단주의 단체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여긴다. 미국의 침공 전 이라크 내 기독교도는 약 150만 명이었지만 그 뒤 50만 명으로 줄었다. 세마 같은 사람 대다수가 현재 이라크 내 쿠르드족 반자치 지역의 난민촌에서 생활한다. 장소는 비좁지만 환경은 크게 부족함이 없다. 일정 부분 전 세계의 종교 자선단체들이 곤경에 처한 이라크 기독교도들의 지원에 발 벗고 나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마에게 난민촌에서의 삶은 일종의 연옥 생활이다.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집은 영원히 카라코시다. IS가 몰려난 뒤 한 번 잠시 찾아간 적이 있다. 가구가 몽땅 도난당하고 바닥에는 재가 덮여 있었다. 앞마당의 화단은 사라지고 이라크 군인들이 IED를 파낸 자리가 크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는 “큰 충격이었다”며 “IS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드 강연은 물론 업계 컨퍼런스를 다녀 봐도 이런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의미의 성적과 학업 성취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대학교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다음호에 계속>

목회 제언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채우는 노동을 해야 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즉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다. 항상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다.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음식을 정기적으로 열심히 먹지 않으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영혼의 건강도 그런 것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 것이다.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지 않으면 광야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다. 대적에게 포로가 되고 대적이 주는 멍에를 메고 사망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 가득하게 담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 생활을 하셨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시는 일을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맡은 일에 충성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광야에서 만나를 배부르게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항상 먹어야 하는 것이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망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잘 나타나는 성숙함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특별히 거룩한 사명을 받아 거룩한 섬김의 삶을 성도 앞에서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데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되고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부끄러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나무의 뿌리가 물을 가까이 하여야 물이 그 뿌리를 통하여 나무에 채워지는 것이다. 물이 나무에 충분하게 항상 채워야 그 나무는 푸르게 자라게 된다. 더위를 이기고 기근을 이기고 귀한 나무로 풍성한 그늘을 제공하고 귀한 열매를 맺어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에 교회 일로 인하여 염려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항상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야 하는 것이다. 채워야 하는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죄로 채우면 죄가 나타나는 법이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들포도를 맺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즉 사망으로 마음에 채우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들포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채우는 일에 얼마나 수고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불을 가까이 하고 불 가까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불기가 다가와 따뜻하여진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까이 가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채워지는 법이다.

우리 마음은 성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솟아난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더 많이 수고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법이다.

동역자들이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법이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 즉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다. 믿음으로 마음에 채우는 일을 잘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동역자들이여!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을 항상 하자. 내 마음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교회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고 세상도 하나님으로 마음에 채워진 사람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신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는 말씀이

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6:55-58).

sangdkim@yahoo.com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천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요구-미켈란젤로

역사적으로 어느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천재라고 칭하며 사람들은 그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천재란 어떤 사람일까?

어느 음악가는 천재란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 유투브를 볼 때마다 감동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겨우 9살의 네틀란드 소녀가 푸치니(Puccini)의 오페라 잔니스키키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Oh mio babbino caro)를 불러 심사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이다. 심사위원들은 기적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겨우 9살 된 아이가 어른의 감성을 가지고 기교를 요하는 아리아를 그리 잘 부를 수 있는냐고 감탄했다. 이런 것이 곧 천재의 재능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정도를 깨달으려면 보통은 2-30대가 되어야 하는데 십대에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천재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그런 의미에서 미켈란젤로(Michelangelo, 1475-1564)는 조각과 회화, 그리고 건축, 또 시인의 범주까지 넘나드는 천재다. 그는 89세(1564.2.18)로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걸작을 남겼다.

미켈란젤로는 카프레세(Caprese)에서 루도비코 부오나르티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마을의 말단 관리였다. 특히 카프레세는 피렌체의 동쪽, 100여 Km 떨어진 깊은 산속 작은 마을

로 로마를 관통하는 테베레 강의 발원지이다. 이 마을의 뒤편에는 성 프랜시스가 기도하던 베르나(S. Verna) 산이 있다. 안내판에 의하면 성 프랜시스가 이곳을 방문하여 너무 아름다운 곳을 깨닫고 작은 하나님의 계곡(La piccola valle di Dio)이라 칭했다고 한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영세를 받았고 석 달 만에 피렌체로 이주하였다.

어머니 프란체스카(Francesca)는 1481년, 미켈란젤로가 여섯 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세티카노의 유모에 맡겨졌고 유모의 남편이 석공이었기에 어릴 때부터 대리석을 가까이 했고 끌과 망치가 그의 장난감이었다.

1490년 아버지는 피렌체의 로렌초 대공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넘겨주었다. 메디치가의 대공 로렌초는 예술가의 중요성을 알고 후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15세에 메디치 궁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박식한 인문주의자 안젤로 폴리리아노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사별하였기에 그의 작품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아련한 슬픔이 묻어 있다. 바티칸 입구 오른쪽에 있는 그의 첫 작품 피에타(Pieta)는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다. 마리아의 얼굴은 슬픔이 어려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형상일 수 있다.

그는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

움을 품고 작품 활동을 했다. 정면을 보지 않고 약간 비껴있는 여인상, 또는 고개를 조금숙인 여인상이아말로 미켈란젤로의 어머니에 대한 영원한 구원의 표상일 수 있다. 그림에 비해 웃음을 살짝 비치고 있는 모나리자의 형상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머니와의 행복의 반영일 수 있겠다 싶다.

23살에 피에타를 성공적으로 제작한 그는 1501년, 그가 26살에 그 유명한 다윗 상을 제작했다. 건장한 다윗상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근육처럼 조각되었다. 그런 근육을 표현하기 위해 주교의 허락을 받아 묘지에서 시체를 해부함으로 인체의 비밀을 터득해야 했다. 그는 이 작품들로 벌써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었다. 당시 자신보다 23살 연상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필적할 만한....

그는 조각의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사람은 돌을 쪼아 원하는 상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그는 이미 돌 안에는 상이 준비되어 있기에 그 부산물을 떼내어 원래의 상을 들어내는 것을 조각가의 사명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돌의 산지인 카라라에 가서 돌을 고르느라 수개월씩을 보내야 했다. 이런 일을 고향들은 하나같이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교황 율리우스 2세는 그를 불러 자신의 영묘 제작을 의뢰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당시 예술가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미켈란젤로는 야심차게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정작 교황의 관심은 다른데 있었다. 그 이유는 교황은 브라만테에게 바티칸을 건축하도록 의뢰하였고 영묘를 바티칸 안에 두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미켈란젤로는 교황이 자신에게 맡겨준 영묘제작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일이 브라만테의 농간에 의한 것으로 오해했다. 그래서 집을 싸가지고 피렌체로 돌아와 버렸다. 그러나 교황은 피렌체 당국에 미켈란젤로를 보내지 않으면 피렌체를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하자

대사의 중재로 다시 로마로 가서 교황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다. 교황은 돌아온 그에게 시스티나 천장화를 맡겼다.

미켈란젤로는 한사코 그 일을 맡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새롭게 부당한 젊은 화가 라파엘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했지만 교황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조각가였기에 대형 프레스코 화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에 더욱 난감해했다. 한번 실패하면 작가로서 끝장날 수 있



미켈란젤로의 흉상

기 때문이었다. 프레스코 화는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그려야 하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그려야 하고, 잘못 그리게 되면 전부를 뜯어내야 하는 고달픈 작업이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브라만테가 자신의 작업을 실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황을 꾀어 이런 어려운 일을 맡도록 유도하였다고 믿었다. 미켈란젤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이를 갈며 라이벌의 콧대를 꺾어 놓겠다는 일념으로 1508-1512년 동안을 오기로 매달려 방대한 천정화를 완성하였다. 당대의 화가들조차 입이 딱 벌어지게 하는 걸작은 이렇게 탄생했다.

그 후 후임 교황 바올 3세에게

불려가 최후의 심판을 그리도록 의뢰 받았다. 신앙심이 깊었던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아담을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생각했다. 아담이 죄에 오염되지 않았을 때의 형상, 그것은 웃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항상 나체를 고집했다.

그는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의 장면 중에, 지옥의 왕 미노스를 거대한 뱀이 칭칭 감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그런데 미노스의 얼굴을 교황의 의전관 체세나로



미켈란젤로가 태어난 집

그렸다. 그 이유는 최후의 심판을 그리는 중에 교황이 의전관 체세나를 대동하고 그림의 진도를 보려고 방문했는데 모든 인물들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린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겨 혹평했기 때문이다.

“그림들이 불경하여 목욕탕에나 어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는 크게 분노하여 지옥

의 왕 미노스의 얼굴을 의전관 체세나의 얼굴로 대체했다. 후에 이 사실을 안 체세나는 얼굴그림을 바꾸어 주도록 교황에게 간청했다. 그 때 교황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다. “자네를 연옥에 넣으면 내가 부탁해서 구원해주겠지만 이미 지옥에 있는 이상 어떻게 율

릴 수 있겠는가!”

웅장한 바티칸의 건축에는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었기에 속죄권이 판매되어야 했고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 마틴 루터는 구원의 문제로 갈등하다가 1500년, 로마를 방문했다. 두 사람이 만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최후의 만찬 하단에는 두건을 쓰고 겁에 질려있는 수도사의 얼굴이 만년의 루터를 닮았다고 한다.

또한 마가가 껌질을 벗겨 순교

당하는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그 벗긴 껌질의 얼굴을 자신의 모습으로 그렸다. 그렇다면 자신의 영적 연약함을 통렬하게 느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 그림의 낙성식 때 벽화를 본 바오로3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심판의 날에 죄의 죄를 묻지 마소서’ 라고 기도드렸다고 한다.

당시 미켈란젤로는 가장 유명한 인사가 되어있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최고의 권력자들이 손을 내밀었고 그에게 작품을 맡기려고 안달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다.

(9면으로 계속)



푸/른/초/장



이영성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미국의 남북전쟁 전의 어느 봄날, 오하이오 주에 있는 테일러라는 사람의 큰 농장에 집이라는 소년이 일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주인 테일러씨는 집 소년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집은 여름내 딸나무를 준비하고 소를 말아 키우는 등 일을 잘했습니다. 집 소년은 밤은 부엌에서 먹고 잠은 건초를 저장하는 창고에서 잤습니다. 일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집은 주인 테일러씨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모욕적인 인사로, 너와 같이 돈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장래성이 없는 사람과는 나의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고 냉정히 말했습니다. 집은 아무 말도 없이 자기의 소유물을 챙겨가지고 그 농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농장주인 테일러씨는 건초 창고를 부수고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집 소년이 자던 한 구석에 집이 자기의 성과 이름을 기둥에 파서 새겨 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거기에 새겨어 놓은 집 소년의 성명은, '제임스 A. 가필드'(James A. Garfield)였습니다.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은 바로 20대 미국의 대통령,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부인이 될 수도 농장에서 평생을 살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ife is between B and D and is C.” 즉, 우리 인생은 Birth(탄생)와 Death(죽음) 사이에 있는 Choice(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

리가 선택한 것들 학교, 배우자, 교회, 직업 등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 정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생이 선택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매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야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슬픔과 탄식보다는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LIFE IS BETWEEN B AND D (여호수아 24장 14-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아세라 등과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곳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살전 5:16-18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인

1990년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랫말들이 너무 슬프습니다. 그 분의 노래를 듣다보면, 너무 슬퍼집니다. 대표곡 중에 하나의 가사입니다. “이룰 수 없는 이와 사랑에 빠졌을 때 너무나 사랑하여 이별을 애갈할 때 아픔을 감추려고 허탈이 미소 지을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결국, 33살의 젊은 나이로 슬프게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매일 슬픔대신 기쁨을 선택하라”(살전 5:16). 우리는 모든 일에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일지라도 때때 슬픔과 탄식대신 이렇게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픈 직장이었었는데 이번엔 다른 직장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항상 기쁨을 선택하시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걱정, 근심보다는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365번 반복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365일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너무 커보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남과 비교하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내 자신은 ‘메뚜기’와 같이 여겨지고 온통 근심과 걱정거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찾아옵니다(빌4:6,7).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메뚜기의 마음을 가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새가 와서 쪼아 먹지 않을까? 들의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을까? 늘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사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리포트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민14:1-3). 결국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4장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자신의 불평과 원망과 같이 모두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매일 선택해야 할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살전5:18).

데살로니가교회는 그리스반도 북쪽,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던 교회로, 로마의 박해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임박한 교회였습니다(살전

3:4).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심을 알게 되면 가능합니다(시100:4-5).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재산 상속을 많이 받기 위해 장자로 속인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을 선함과 인자함으로 대해 주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고난을 당하며 울부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환경을 초월한 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합 3:17-18).

20여년 전에 LA에서 폭동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피해를 당하신 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재산은 잃어버렸지만,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새생명 얻음을 감사하며, 건강 주심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가는 말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항상 슬퍼하고, 쉬지 않고 근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행복한 삶”입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우리는 정부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7월 4일, 워싱턴DC 케네디 센터에서 미국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자유 축제가 있었습니다. 달라스의 First Baptist교회의 담임 목사 Robert Jeffress가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이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것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을 위해 생명 파친 참전용사와 미국을 세운 전통 신앙을 트럼프 대통령도 동일하게 중요시여기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뒷이야기입니다.

이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종교적 자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나라(미국)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자유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종교적 자유의 뿌리를 지적하며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독립선언서를 241년 전에 서명하고 지금까지 미국은 항상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자유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민의 권리를 주셨기에 이 세상의 어떤 이념, 사상과 힘도 이 권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하게 종교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인들을 너무 오랫동안 작은 (돈 있는) 소수들에게만 권리를 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수도(워싱턴DC)에서 관료정치인들이 여러분의 삶을 빼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뒤집으며 여러분의 신앙에 참견하고 심지어는 개인이 어떻게 살며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통제할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교회가 건강한 문화를 세워나간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여 번성하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관료정치인들이 아니라 부모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강하고 사랑하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정부가 아니라 가족과 교회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는 것은 미국에서 우리는 정부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종교적 신앙과 전통적 가치관이 보호되길 바라며 트럼프를 투표해준 복음주의 기독교인 모두가 동의하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패한 Veterans Affairs(VA)를 드디어 고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8년간 시민들의 세금을 받으면서도 무능하거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 기독교 지도자들!

VA팀의 사무직원들은 548명을 해고했고 200명을 일시 중지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의 요점은 기독교 신앙을 중요시하고 방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선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는 영웅들(참전용사들)을 우리 주위에 선물로 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7월 10일에 Office of Public Liaison과 “듣는 시간(listening session)”에 20여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었는데 계획에 없었던, 예

상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도해 주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기독교 지도자 중의 한 명인 Liberty University의 전 수석 부회장인 Johnnie Moore은 여러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나누며, 보여주는 사진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실질적인 좋은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며 미국정부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웨스트 왕으로 까지 초대해서 모두에게 기쁜 서프라이즈가 됐습니다.

미국 남미가독교단체인 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의 부회장인 Tony Suarez는 대통령이 아주 기분이 좋았고 친구들과 모인 것 같이 아주 편안해 보여서 좋다고 했습니다.

참석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미국의 회복을 위해 수년간 개인일(Job)들을 다 뒤로하고 매일 금식 기도나 또는 법으로 싸워온 단체 대표들과 교역자들이 대부분입니다: Tony Perkins, Pastor John Hagee, Paula White, Michele Bachmann, Ralph Reed, Gary Bauer, Robert Jeffress, Jack Graham, Jim Garlow, Rodney Howard-Browne, Mike Evans, Richard Land, 등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처럼 구체적인 종교 사무실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비공식적 접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패밀리 리서치 카운슬의 대표인 Perkins는 말하기를 ‘트럼프 행정부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우려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Perkins가 지난 14년 워싱턴DC에 있는 동안 지금까지 미국의 변화에 대한 희망이 가장 큰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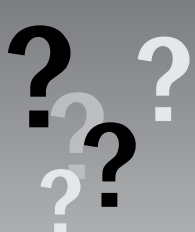
월요일 온종일 있었던 “듣는 시간”에 지도자들은 종교적 자유, 형사 사법 개혁, 외교 정책, 이스라엘, 이민 개혁, 등 다양한 행정부 정책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책 문제와 법원 임명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기독교 지도자들의 조언과 기도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 부어 주시길 바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과 그가 펼치려는 보수적 정책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미국의 영적 회복과 국가리더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보호를 위해 많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뉴에이지 운동이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비판해 주십시오.
-토랜스에서 이희은

A: 지난주에도 뉴에이지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근본정신은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은 낙원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배후에 깔아 놓은 사탄의 교묘하고 사악한 인본주의 운동의 전략입니다.

첫째, 뉴에이지 운동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개나 중생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죄를 믿지 않으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뉴에이지 운동은 루시퍼에 대한 경배를 강조합니다. ‘빛의소리’의 김형린 글에 의하면 뉴에이지 운동의 지도자이며 스코틀랜드 핀드혼 재단 뉴에이지 운동 본부 제2대 대표였던 데이비드 스펜클러는 지난 78년 한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 안에서 작용한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려면 각자 루시퍼를 경외하고 루시퍼에의 입회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루시퍼란 사탄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근원인 신지학협회 3대회장인 엘리스 베일리는 공개적으로 루시퍼에 대한 헌신과 봉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사악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마약사용을 권한다는 것임

(2) 인본주의 옷입은 사탄운동...마약사용, 세계단일정부와 종교통일 주장

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추종하는 뉴에이지자들은 마약이 인간의 의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지속적인 복음을 권하지 않고 다만 의식 확장의 초기단계에서 사용할 것을 주장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마약은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뉴에이지 운동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세계단일 정부를 만들도록 길을 닦는 운동입니다. 뉴에이지들은 명상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어떤 중매자로부터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이 짐승 숫자라고 못박은 666을 성스러운 숫자라고 봅니다. 이들은 반만 그런 무지개와 모든 것을 본다는 피라미드의 눈, 꼬리를 문 뱀, 불교의 만자 유니콘(뿔이 이마에 달린 말), 각종 원형들을 상징으로 씁니다. 뉴에이지들은 진정으로 이 세상에 평화가 오려면 세계단일정부가 나오고 모든 종교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세계단일정부의 지도자야말로 적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후3년반의 환난시대에 등장하여 정치 종교 경제를 통합한 패권을 잡은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메이슨도 그 이념이 뉴에이지 운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데 뉴에이지들을 적그리스도인 다른 메시지를 고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히틀러, 스탈린 등 인물보다 훨씬 지독한 독재자일 것으로 내다봅니다. 1982년 4월 25일에 세계의 유명한 일간지인 뉴욕타임스 등 각국의 신문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전면광고가 실렸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는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돕고 영감을 주려고 왔다.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자이다. 그는 마이트레아이며 세계의 교사이고 인류의 스승이다. 그는 아직까지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가 있는 곳은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알려져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기 위하여 성경의 용어와 예수의 행동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구원, 빛, 사랑, 평화라는 단어를 도용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의 옷을 입은 사탄운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적으로 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학교 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신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7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7년 9월 1일(금) 오후6시
- 3 입학시험 : 2017년 9월 2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강부흥회 : 2017년 9월 5일(화) - 9월 7일(목) 저녁 8시
-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브리야트(The Buryat of China)



대부분의 브리야트족은 바이칼호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인 시베리아 남쪽 지역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7만8천명의 브리야트족은 내몽골이라고 알려진 광대한 지역인 중국 북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그들은 내몽골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인 러시아와 몽골의 국경선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다. 브리야트족은 몽골인들과 가까

운 친족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이 두 그룹은 비슷한 역사, 문화, 종교, 생활양식을 공유한다. 이런 문화적 유사성 때문에 중국 정부는 브리야트족을 공식적으로 등록된 중국의 55개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몽골부족의 부류로써 분류하고 있다. 브리야트족은 브리야트라고 불리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타이어족 중 몽골어족에 속한다.

삶의 모습

브리야트족의 생활양식은 중국에 있는 다른 몽골민족들과 유사하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유목민으로 살았다. 그들의 문화, 사회,

경제는 말, 양, 염소, 가축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기르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소수의 몽골인들은-중국 북쪽의 민족들과 친족관계에 있는-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밭을 재배하고 있다.

브리야트족은 전통적으로 간편한 유르츠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크고 둥근 펠트제의 텐트를 가벼운 나무로 된 구조물 위에 펼쳐놓은 형태다. 7-8피트 높이인 유르츠들은 그들의 유목생활을 위해 이상적인 형태이며, 그들은 약 2시간 이내에 텐트를 치거나 해체시킬 수 있다. 20세기동안 대부분의 브리야트족은 유목생활을 버리고 한 지역에서 동물을 기르기 위해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텐트를 떠나 유르츠처럼 보이도록 지은 집으로 이사했다.

브리야트족은 2가지 전통적인

결혼 형식을 가진다. 부모님에 의해 정해지는 결혼과 남치에 의한 결혼인데, 후자의 형태에서, 장래의 신랑 친구나 친척들은 신부의 동의를 받거나 혹은 받지 않고 신부를 납치한다. 젊은 남자들은 대개 18살과 25살 사이에 결혼한다. 결혼식 때 신부는 전통적으로 동물의 지방 조직 중 약간을 떼어내 시아버지의 가슴에 던지는 의식을 행한다. 만약 그녀가 표적에 정확히 맞춘다면 그것은 다산의 표시로 여겨진다.

브리야트족의 여성들은 대개 아이를 많이 낳는다. 이전에는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령으로부터 그들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식물을 행했다. 그들은 보통 여자의 아이의 이름을 남자아이에게 지어주고, 남자아이의 이름을 여자아이에게 지어줌으로써 그 약령을 혼란시키려고 노력했었다

신앙

브리야트족은 라마교식의 불교(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불교형태)를 따랐다. 이 종파는 티벳에서 발전했고, 나중에 몽골에도 퍼졌다. 불교의 토대가 되는 믿음 중 하나는 환생 또는 계속되는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의 교리이다. 브리야트족은 한 사람 중 하나는 환생 또는 계속되는 죽음과 재탄생의 순환의 교리다. 브리야트족은 한 사람의 영혼이 다른 육체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고 이전의 생이 끝나면 바로 새로운 생을 시작한다고 믿는다. 불교도들은 환생의 순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탈'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환희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의 종교를 창설한 자인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공산주의자들이 1949년 중국을 인수한 이후에 모든 종교적 관행

은 방해받았고, 브리야트족에게 있어 종교의 중요성은 감소했다. 오늘날 그들의 불교적 믿음중 대다수는 애니미즘(인간이 아닌 사물이 영혼을 갖고 있다는 믿음)과 섞여졌다.

필요로 하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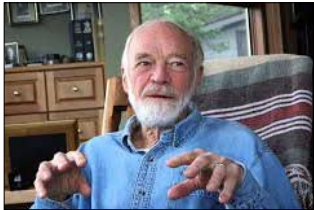
브리야트족은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성경의 한 부분만이 브리야트족의 언어로 번역됐고, 현재 예수에 관한 영화나 기독교 자료들 중 어떤 것도 그들은 이용할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브리야트족을 영적 속박에 가두어 놓은 성채를 부수기 위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유진 피터슨, 동성결혼 지지 발언으로 파문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이자 ‘메시지’ 성경 저자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유진 피터슨(85·사진) 목사가 동성결혼 지지 발언으로 파문에 휩싸



였다. 피터슨 목사는 발언을 철회했지만,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젠 끝이다, 유진 피터슨(Farewell, Eugene Peterson)’이라는 댓글이 쇄도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12일 미국의 비영리 종교매체 RNS(Religion News Service)의 인터뷰 기사에서 시작됐다. RNS의 조나단 메리트 기자가 “만약에 당신이 목회사역을 하는데 신앙심 깊은 동성커플 성도가 결혼식 주례를 요청하면 받아들일 것이지?”고 묻자, 피터슨 목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게이나 레즈비언과 같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논쟁은 옳고 그름의 영역을 벗어나 이미 종식됐다고 주장했다. 피터슨 목사는 “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게이와 레즈비언을 알고 지낸다”며 “이 문제에 동의할 수 없는 크리스천들은 다른 교회로 가겠지만 변화는 시작됐다. 성소수자 문제가 떠벌일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의 발언에 기독교계가 술렁였다. 미국 최대 기독교 서점인 라이프웨이는 피터슨 목사의 모든 저서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라이프웨이 대변인은 지난 12일 크리스채너티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성경적 결혼관을 가진 작가의 책만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

반발이 확산되자 피터슨 목사는 즉각 수습에 나섰다. 그는 13일 워싱턴포스트에 입장문을 보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일이라는 성경적 관점을 지지한다”며 “‘만약에’라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은 했지만 더 생각해 보고 기도한 결과 그 말을 철회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배격하지는 않았다. 그는 “동성애자들은 내가 섬긴 다양한 교회와 대학 캠퍼스, 공동체에 있었다. 목사로서 내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방문하고, 영혼을 보살피고, 함께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이라고 했다.

동성결혼 지지 발언 철회에도 피터슨 목사를 겨냥한 인터넷상의 비난여론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SNS에는 “진리를 찾지 않고 책 팔아보려는 술수”라거나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매우 실망” “신학생 때 산책 모두 버렸다”는 등의 의견이 오르내렸다.

“세 살 딸 강간한 무슬림 처벌율!” 크리스천 맘의 투쟁

무슬림에게 끔찍하게 성폭행 당한 세 살 배기 딸을 위해 파키스탄의 크리스천 엄마가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이가 제대로 저항



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평생 인신을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현지 경찰이나 법원 등 공권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분노하고 있다.

기독교 매체 헬로우크리스천닷컴은 10일 크리스천 여성 캐서린 비비(38)가 성폭행 피해를 입은 딸 사이바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영국파키스탄기독교 협회(British Pakistani Christian Association·BPCA)를 인용해 보도했다.

BPCA 등에 따르면 성폭행은 지난 1월 편자부 주에서 발생했다. 실금망민 캐서린은 장남(21)과 일을 나가 집을 비운 사이였다.

캐서린은 둘째 아들 다우드(10)에게 막내 사이바를 잘 돌보라고 당부한 뒤 일을 나갔다. 하지만 무슬림 무함마드 임바스(21)가 집으로 찾아오면서 끔찍한 일

이 시작됐다. 장남을 찾던 무함마드는 집에 어린이 없다는 걸 눈리고 다우드에게 담배 삼부뽕을 시켰다. 다우드가 집을 비운 사이 무함마드는 사이바를 성폭행했다. 다우드가 집으로 돌아오자 무함마드는 잠시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우드가 사은 담배를 쥐고 유유히 자리를 떴다. 집 안으로 들어선 다우드는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는 동생 사이바를 발견했지만 어쩔 줄 몰라 꼭 끌어안기만 했다. 사이바는 발견 당시 옷이 벗겨진 채 피범벅이었다고 한다. 천만 다행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캐서린이 돌아와 더 큰 참변을 면했다.

캐서린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대응하지 않았다. BPCA에 따르면 캐서린의 변호사가 강하게 요청하기 전까지 경찰은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월슨 찬드리 BPCA 회장은 “어린 아이가 말로 형언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면서 “3살 사이바 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가해자가 다신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중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상황은 좋지 않다. 캐서린은 지난 7개월간 딸의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돈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당장 다음 주에 법정에서 심리가 열릴 예정이지만 캐서린은 이미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 가해자 무함마드는 수차례나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파키스탄에서는 무슬림의 크리스천 소녀를 겨냥한 납치와 강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14살 크리스천 소녀 마리아가 편자부 주에서 강도들에게 납치됐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무슬림 이웃들의 태도다. BPCA는 마리아의 가족들이 딸 납치를 이웃이나 경찰에 알릴 경우 몰살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월에는 12살 크리스천 소녀 타나 마리아야 바지가 벗겨지고 입에 알 수 없는 거품을 문 채 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BPCA는 파키스탄의 크리스천 여자아이들을 겨냥한 범죄가 이어지는데도 경찰과 법원이 제대로 나서지 않는 것에 크리스천이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시에 두 자매에게 청혼한 남자, 그 숨은 사연

미국 인디애나주 산타클로스에 사는 월 시튼(25)은 최근 자매에게 동시에 프러포즈를 했다. “이게 실화냐”란 말이 나올 법한 막장 드라마같은 상황이지만 그 뒤엔 감동적인 사연이 숨어 있다.



지난 5일 USA투데이 등 다수의 매체는 두 자매에게 프러포즈한 한 남성의 훈훈한 사연을 보도했다. 월 시튼과 애슐리 스카우스(23)는 2010년 자동차쇼에서 만나 데이트하기 시작했다.

애슐리에게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동생 한나(15)가 있었다. 한나는 다운증후군과 당뇨병을 앓고 있어 항상 언니 애슐리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다. 애슐리는 월과 데이트를 하면서 한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월은 마음이 따뜻한 애슐리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항상 한나도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도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월과 애슐리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애슐리는 두 명의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했다.

지난해 3월 결혼을 결심한 월은 결혼을 하려면 동생에게 먼저 프러포즈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월은 한나에게 먼저 프러포즈를 하며 반지를 건넸다. 월은 한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돼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한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월은 애슐리에게도 무릎을 꿇고 청혼을 했다. 애슐리도 월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웃기 시작했던 한나와 애슐리는 결국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모두 한참을 울었다. 스카우스는 “월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한나를 사랑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다.

월과 애슐리는 오는 10월 7일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는 이날 매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녀는 신부가 아닌 ‘최고의 여동생’으로서 월과 가장 친한 친구 서약을 하고 피로연에서 형부와 언니를 축하하기 위한 노래와 춤을 연습하고 있다.

교회가 회사처럼 운영되는 3가지 사례와 결과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는 최근 교회가 회사처럼 운영되는 3가지 사례와 그로 인한 결과를 꼬집은 칼 베이터스(코너스톤크리스천펠로십 교회) 목사의 글을 실었다. 그는 회사처럼 운영되는 교회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사례는 목사가 예수라는 상품을 파는 경영인처럼 행동하고 교인들이 고객처럼 행동하는 교회다. 교인들을 교회로 끌어오기 위해 “꼭 쉬면서 서비스를 받으”고 말하는 교회가 많다. 이 경우 교인들은 자신의 사역을 남들에게 미루거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교회를 찾아 떠나곤 한다. 이런 교회에선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교회에 남는 것은 지친 목회자들과 믿음이 얇은 교인들뿐이다.

두 번째 사례는 목사가 관리자처럼 행동하고 교인들을 부하처럼 대하는 교회다. 교인들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목사가 교인들을 일꾼처럼 대하면 교인들은 적극성을 잃는다. 교회를 섬길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종’이나 ‘섬김’ 등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남용하는 목사들로부터 혹사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에선 목사가 군림하고 교인들은 극도로 피로해진다.

세 번째 사례는 교인들이 주주처럼 행동하고 목사를 일꾼처럼 대하는 교회다.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교인들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교회에서 볼 수 있다. 중요한 결정에 교인들의 의견을 묻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교인들의 힘이 과해지면 목사들은 교인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한다. 이런 교회에선 교인들이 군림하고 목회자들은 무기력해진다.

베이터스 목사는 “교회에서 군림하는 이는 예수님이 계셔야하는 자리를 빼앗고 교회에서 고객처럼 행동하는 이는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을 놓친다”고 지적했다.

‘마약 마을을 구합시다’ 2300km 자전거로 달린 목사

미국 오하이오 주의 한 목사가 마약으로 위기에 놓인 마을을 구하겠다며 18일 동안 자전거 투어에 나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 지역지 클러몬트 선(The Clermont Sun)은 바타비아 임마누엘통일감리교회 조 로열(Joe Royer) 목사가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2300km의 거리를 자전거로 건넜다고 최근 보도했다.

임마누엘통일감리교회는 매년 두 차례씩 남미 콜롬비아의 브리사스 델 마르 마을에서 선교활동을 펼쳤다. 로열 목사는 보다 특별한 전교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와이오밍 주 캐스퍼에서 오하이오 주 바타비아까지의 자전거 투어를 기획했다.

지난해 장난삼아 던진 이야기가 자전거 투어의 발단이 됐다.

목사는 캐스퍼에 사는 친구에게 자전거 실력을 뽐내며 “언젠가 캐스퍼부터 신시내티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거라고”라고 말했다. 친구는 “제발 그러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목사는 친구의 대답을 듣고는 자전거 여행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성도인 빌 마스크엘이 자신의 차량으로 자전거 투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계획은 현실이 됐다.

목사는 길목마다 있는 교회들을 숙소 삼아 하루 이동 거리를 확인했다. 적게는 124km부터 많게는 229km까지 달렸다. 로열 목사는 숙소에 머물면서 여행의 목

적을 알리고 동침을 유도하기도 했다.

여행을 통해 총 1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모였다. 목사는 “기금 전액을 선교 후원금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식당서 만난 경찰아저씨를 위해 기도해준 8세 소녀

“내가 아저씨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미국의 한 식당에서 경찰관들을 올린 8살 소녀의 기도가 화제다. 지난 6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지역



에 살고 있는 마르타는 페이스북에 딸 페이지(8)와 함께 식당에 갔다가 경찰들을 만난 일화를 공개했다.

이날 페이지 가족은 외식을 하기 위해 집 근처 식당을 방문했다. 가족들이 식당에 들어섰을 때 8명의 경찰관이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경찰 아저씨들을 본 페이지는 이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혼자 두박두박 걸어갔다.

그리고 페이지는 경찰들에게 다가가 “내가 아저씨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해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페이지의 갑작스런 제언에 경찰들은 당황했지만 “(기도를 위해) 다함께 머리를 숙여달라”는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페이지는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경찰 아저씨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다치지 말고 몸 건강히 다닐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 희생해주셔서 감사해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페이지의 기도에 감동을 받은 일부 경찰관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경찰관들에게 소녀의 기도가 더욱 의미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지난 달 동료 한 명이 업무 중 총에 맞아 순직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뒤 경찰관 중 한 명은 페이지 가족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얼마 전 가장 친했던 동료가 숨져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었다”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를 그리워하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녀가 다가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준데 희생된 동료 생각이 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우리 목사님 죽인 범인 잡아주세요” 거리로 나선 기독교인들

인도 연론 힌두스 탄타임스는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루디아나 시에서 목사를 이유 없이 살해하고 달아난 괴한들을 체포하라고 요구하며



인도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섰다”고 17일 보도했다.

메이시 목사는 지난 15일 저녁 한 교회 근처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마스크를 쓴 2명의 괴한에게 총알 3발을 몸에 맞았다. 범인들은 현장에서 도망쳤고 목사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루디아나 시의 기독교인들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1번 국도를 막고 메이시 목사를 살해한 범인을 잡으라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시위는 시위 시작 후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30분 루디아나 시의 경찰국장이 찾아와 기독교인들을 진정시키고서야 끝났다.

이날 인도 하원의원 4명이 시위 현장을 찾아 목사의 죽음에 애도를 표시했다. 인도 기독교 연합 회장 앨버트 듀야는 기독교인들에게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라며 “곧 잡힐거라고 말했으니 해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힌두스탄타임스는 경찰이 범행 현장 당시의 CCTV를 공개했지만 CCTV에서는 범인들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탄피 3개가 발견됐으며 이 탄피는 2개의 무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루터의 결혼과 충격

성직자의 결혼은 로마가톨릭과 개신교를 비교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다. 전자는 독신으로 헌신된 자들에게만 신부의 자격을 허락하지만, 개신교는 가급적 결혼한 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도록 권장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루터는 중세교회의 신부로 헌신한 인물이다. 다시 말해, 교회의 권위 앞에 납작 엎드려서 평생토록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전심을 다해 충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의 마음에 종교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기 이전까지, 자신의 선서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된 수도승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을 주도한 이후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단순히 성경적 이해나 신학적 사고에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신부를 맞아들여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린 것이다. 루터가 1525년에 결혼식을 올렸을 때 그의 나이가 42세였으며, 그의 아내는 26세로 그보다 무려 16살이 어려웠다. 그의 아내 캐터린은 수녀원 출신이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거센 바람이 수도원과 수녀원에도 강타한 결과, 중세의 틀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던 자들이 속속히 생겨났다. 캐터린과 다른 수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수녀원을 탈출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다른 전직 수녀들은 모두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가지게 되었다. 루터는 유독 배우자를 찾지 못하던 캐터린을 위하여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상대가 루터라면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그 결과 두 사람은 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하여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루터가 결혼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무엇보다 그가 교회의 전통을 전적으로 거부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의 동력이 떠오르던 중세 말기의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성직자의 독신을 거부할 수 없는 영적 전통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무척 오래전에 시작된 교회 역사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서방 교회의 전통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부부관계를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는 일은 정상적인 일로 보았으나 부부관계를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교부들 중에 향후 중세교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인물은 다름 아닌 초대교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등장한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이었다.

우리는 어거스틴이 기록한 “참회록”을 통해 그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다. 그는 회심하기 전의 자신의 방탕했던 삶을 매우 노골적으로 서술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매우 엄격한 견해를 지니게 된 것이다.

그는 향후 강력한 서방 교회의 전통을 심어놓게 되었다. 서방 교회는 이혼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 못을 박았으며, 필요에 의하여 결혼을 원한다면 다음 세가지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1)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결혼은 좋은 일이다. 2)성적 죄를 피하기

황에서 이뤄진 일이었다. 1215년에 교황의 궁에서 모인 자리에서 결혼을 성례 중에 하나로 간주하면서, 비로소 성직자는 물론 평신도의 결혼에 대한 엄격한 교회의 입장을 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뜻

12세기 이후 교회에서 혼인성사를 받아야 그 결혼을 인정을 받게

신자로서, 슬하에 2남3녀 모두 건강하게 키우려고 노력하였다. 루터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품을 지녔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가정이었다. 그는 자녀들을 매우 엄격하게 키웠는데, 루터가 나이가 들어 자신을 빼놓아지지 않도록 양육한 부친에게 깊이 감사하기도 하였다. 루터는 부부와 자녀들이 연합되어 꾸며진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어

을 달리하던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은 당연히 일삼아 그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과 시선에 굴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예덴동산에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결혼제도를 없애는 것은 마귀의 일이며,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깨달았기 때문이다.

1523년에 기록된 루터의 고린도전서 1장 7절 강해에 의하면, 그는 독신보다 결혼이 더욱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결혼이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상태의 모습일 뿐 아니라, 성령께서 가정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이며 신앙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돕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1530년에 저술한 “결혼에 대한 일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루터는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다룰 바가 아니라, 세속 정부의 관할 아래에 두어야 하며,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준하여 결혼, 이혼,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등을 세우갈 것을 강하게 권유하였다.

루터의 개혁의지로 성직자의 독신 문제를 포함한 결혼에 관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그가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으로 이해한 것이었다. 이는 21세기 현대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종교개혁 이전의 결혼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만일 결혼을 해도 부부 사이는 자녀출산이란 목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적인 만남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부부의 사랑을 강조하였다. 결혼은 남녀가 만나 친밀하게 사랑하고 연합하여 가정을 꾸려가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그 중심에는 배우자를 귀하게 섬기도록 소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루터가 강조한 만민제사장설을 결혼에 비추어 해석하자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결혼생활을 위해 허락하신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루터는 아내와 자식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표시하였다.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위치에서 가정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으로 이해한 가정을 돌보는 일을 결코 등한시 하지 않았다. 비록 그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였지만, 가족 간의 따스한 사랑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평안과 위로로 인해 더욱 큰 힘을 얻어 주어진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

covenantcho@yahoo.com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13)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어거스틴의 영향 받은 성직자들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 가져
그레고리황제가 성직자독신 제정...교회 혼인성사 받아야 결혼인정

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아파하고 뉘우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진술하게 고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성적 유혹의 강렬함이 어떠한지 설명하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자신이 정욕을

위하여 부부 사이에 친밀감을 도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3)인생의 반례자로 두 사람이 연합하여 가정을 꾸려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어거스틴 이후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성직자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다시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만남과 결합을 축복한다는 것 이상의 것이었다. 교회는 결혼에 임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매사에 남성이 중심이 되는 것이며, 여성은 남성의 상위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아가서 그

런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독신을 선언한 그가 이를 파기하고 수녀원 출신 아내를 맞아 결혼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수월하게 가정을 세우갈 수 있었다.

단지 루터가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 결혼을 꺼려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자신을 없애려는 로마

종교개혁 주도 후 루터는 결혼에 대한 근본적 생각 변화돼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가장 종교적 상태 모습

이기지 못하고 17살에 젊은 여인과 동거하기 시작하여 14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숨기지 않았다.

어거스틴은 성적 유혹이 이성과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과력을 지닌 원인을 아담의 범죄에서 찾았다. 그 결과, 그는 가급적이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으며, 결혼을 한 경우에도 부부관계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된 것이다. 21세기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수용할 수 없는 주장임에 틀림이 없지만, 어거스틴은 성경 연구와

말해서, 결혼을 선호하는 성직자들은 자신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성직자들은 반드시 독신이 되어야 한다는 엄한 규칙은 오랜 후에 그레고리 황제(Pope Gregory VII, 1073-1085)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그레고리는 교황의 강한 존재감을 교회에 알린 인물이다. 거침없이 중세교회의 개혁을 감행함에 있어서 성직자들은 반드시 독신으로 지낼 것을 명령하였다.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두고 있던 성직자들이 적지 않은 상

들의 결혼 관계 중심에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나아가서 부부사이의 육체적 관계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중세교회는 결혼한 부부의 관계에서도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독신의 삶이 더욱 도덕적이라는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 그들이 숭배하는 성모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녀의 신분을 한없이 높인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루터의 부모는 경건한 가톨릭

교회에 의하여 언제라고 살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결혼 후 아내 될 여인과 자식에게 불행을 가져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아내를 본 후 매력 을 느껴서 작정을 한 것 이상의 이유가 있다. 그는 중세교회가 지녔던 독신, 가정,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려 한 것이다.

루터와 신학적인 뜻을 같이하던 동료 개혁자들 중에 그의 결혼을 반대하던 자들이 있었다. 그와 뜻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8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8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자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록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화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7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7년 9월 30일**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유 료 광 고 안 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3,000.00
		표지내면(2면, 3면)	\$3,500.00
		Back 면	\$2000.00
		Back 면 내면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 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주소록 광고담당 직원 모집: "2018년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에 삽입되는 광고 세일즈 할 분을 모집한다. 좋은 조건의 커미션을 제공한다. 지역은 미 전역과 한국, 전세계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718-886-4400)과 LA(323-665-0009), 이메일(뉴욕 nychpress@gmail.com, LA lachpress@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리더십 코멘터리 (46)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리더여, 일어나 꿈을 펼쳐라

리더는 문제를 새롭게 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리더십을 키울 수 있을까? 소명을 갖고 직분을 맡은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다. 어떤 리더에게나 한계와 난관이 있기 마련이지만 리더십이 성공과 실패의 크기를 결정한다. 리더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리더십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다. 단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리더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달려있는 것이다. 자신의 내부에 있는 두려움, 조급함, 당황, 질투, 분노 등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결국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모든 문제는 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인생길에서 만나 는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로 보일지 몰라도 훈련받은 리더는 문제 속에서 해답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문제지에는 채점을 위한 답안지가 있듯 인생의 모든 문제에도 해답은 존재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리더여, 살아가는 동안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용기를 가지고 대처하라. 준비된 리더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는 리더의 손과 발과 성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리더는 문제를 새롭게 보는 사람이다.

성공을 위한 37가지 질문에 답하라

실패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성공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경제력이 풍부하고, 좋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가진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로 오해될 때가 많다. 최근 미국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공한 근대 인물 39명 중 31명, 현대인물 43명 중 32명이 하나같이 어렵고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장애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성공한 사람의 80% 이상이 특별한 뒷받침 없이 혼자서 어렵게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

이다. 오늘날 비전 없이 예전모습 그대로 현상유지나 하면서 살았는가? 오늘날 체념과 원망 속에서 성실하지 못한 자신을 합리화하며 그럭저럭 살았는가? 현재의 당신이 리더로서 이런 안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는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는 ‘힘의 심리’라는 책에서 “난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해낼 거야!”라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능력의 500%를 발휘하지만, “난 할 수 없어! 난 별 볼일 없는 불량품이야!”라고 자신감 없는 태도로 사는 사람은 자기 능력의 30% 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패한

에 따르는 결론이 있는 것이다.

②“성공의 방법이 옳느냐?”에 대한 답이다. 목표는 동쪽에 두고 있으면서 가기는 서쪽으로 간다면 어찌 성공할 수 있는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합당한 길을 가야한다.

③“삶의 매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한 답이다. 생각도 있고, 뜻도 있지만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헛것이다. 우리는 성공에 대해 물을 때에 “1등을 했느냐? 명문대 출신이 나?”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느냐? 성실한 사람인가?”를 물어야 한다. 당신은 리더로서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집중했는가?

이제 생각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공할 수 없는 나’를 버리고 창조된 본래의 모습인 ‘성공하는 나’를 향해 리더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라. 과거에 가졌던 모든 실패의 경험, 낡은 사고방식,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버리고, 성공을 향한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소유하라. 성공의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그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것이다.

성공했어도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실패한 리더십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에 대한 여러 인물의 사례들이 신문 칼럼 등을 장식하고, 서점에는 다양한 리더십

리더의 출현을 기대한다. 그는 리더로서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경건과 근신, 능력과 사람이 솟아나도록 열정을 쏟아 붓는 사람이다. 리더십은 리더의 의식과 행동에서 맺어지는 열매와 같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기술이나 방법, 훈련보다 삶의 목적, 소명의식에 불타서 자기 스스로를 믿을 안에서 인격적으로 단련해 나가야 한다.

리더십의 최종 목표는 성공보다 사람들을 얻는 것이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집중된 초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야 한다.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일을 성사시켰는데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그런 리더십은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감이 넘치는 리더가 되라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결과는 리더의 목표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리더는 조직구성원들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동기부여를 통해 그들을 움직여 나가야 한다. 사람들은 리더십이 과제중심(task oriented)인지? 대인관계중심(person oriented)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리더십에 목표와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과제중심이며,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리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대인관계 중심이 된다. 리더

는 생각하고 앞서가며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리더를 따르지 않는다면 리더가 아무리 앞서가도 소용없다.

‘설교자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펔전(Charles Haddon Spurgeon, 1834-1892)은 영적 리더가 되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주님은 강한 믿음을 가진 스펔전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의 삶과 사역은 항상 주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충만했다. 스펔전은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보며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스펠전의 믿음은 그에게 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했다. 워터비치(Waterbeach)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던 무렵, 스펔전은 이렇게 선언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여호와 이레이시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자신감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스펔전과 같은 강한 자신감이 지도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한다. 리더여, 일어나 꿈을 펼쳐라.

sondongwon@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국교회)

하나님과 동행자가 성공한 인생-다윗 묵상(4)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23:1, 3, 6).

하나님을 바라고 고난가운데 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묵묵히 따르다 보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바대로 주위 환경을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바꾸어 가신다. 아~ 하늘을 들어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윗은 법사에 주님 앞에 사느라 작은 인간관계도 세심히 배려하다 수많은 각계각층의 친구들이 생겼다.

지금 당장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해도 이웃을 배려하는 삶은 스스로 복을 부른다. 먼 훗날이라도 주님은 기억하시었다 알맞는 시기에 반드시 갚아주시니... 하나님의 계산법은 저를 따르는 자에게 너무도 넉넉하고 정확하게 돌아오도록 하시고 자기 중심인 자에게 갈갈이 무섭다. 갚을 길이 없는 이에게 베푸는 것이 100% 보장된 복 받는 투자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아주시지 몰라도 주님은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일석 여러 조의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신다.

인내의 시험의 기간이 때가 차매 헤브론에서 7년 반 유다를 다스릴 때 사울 쪽에 자중지란이 일어나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와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다.

얼마나 힘에 벅찬 버거운 날들이었는가? 전심으로 당신만 의뢰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의 일생이 말해준다. 오고 오는 모든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에게 예의 없이 임할 불변의 진리임을 선진들의 삶에 새겨 놓으셨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감 하나만은 또렷했다. 중심에 심겨진 뚜렷한 사명감을 부여잡고 굳게 달려가는 인생은 고달프다. 그러나 저들의 깨끗한 삶은 정말로 멋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웅들은 나름대로 고통과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고수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었다. 영웅이 따로 있던가? 중심에 심겨진 믿음의 법을 그대로 삶속에 사는 자가 곧 그이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이목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진정한 삶의 성공자가 아니런가!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이 사울과는 정말로 판이하다. 사울은 백성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자리구축에 온 신경이 다 있었으나 다윗은 백성을 사랑한다.

heonlee55@hanmail.net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에 입선하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지/구장



광야의 소리, 윤종하
성서유니온



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김준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감사 플러스 공경 플러스
이영훈 역/아름다운 동행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항존직 당회원 임기문제는 연말까지 유예

해외한인장로회 개정헌법 세미나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박성규 목사) 개정헌법 세미나가 11일 오전 10시 주향교회(담임 김신 목사)에서 KPCA 헌법규례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박성규 총회장은 “지난 5월 9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42회 KPCA 총회에서 노회수의를 통과

한 총회개정헌법이 선포됐다. 그러나 항존직 당회원 임기문제에 대해 전달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기에 연말까지 임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정헌법의 중요한 부분을 다시 재정리하고 컨폼하기 위해 총회

헌법규례위원회에서 헌법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헌법개정위원장 김인식 목사가 ‘KPCA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해 강의했으며, 헌법개정위원 박형주 장로(아브라함리컨 대학교 총장)이 ‘권징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KPCA 측은 미국 동부지역과 캐나다에서도 헌법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KPCA 개정헌법 세미나에서 박형주 장로가 강의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6대 김지훈 담임목사 취임식에서 설교 축하 격려사 등 순서 맡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김지훈 담임목사

“하나님 뜻만 구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6대 담임목사 취임식

동양선교교회(OMC) 김지훈 6대 담임목사 취임식이 16일 오후 4시에 거행됐다. 김지훈 담임목사는 “하나님께서 지난 47년 동안 동양선교교회를 통해 큰 사명을 감당해 주셨다. 동양선교교회는 이만자들에게 예수님의 송고한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에 주신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지난 날 존재했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으고 하시고 돌을 하나로 만드시어 동양선교교회의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장을 열고 계신다. 동양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어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이 이곳에 있게 하시겠다는 솔로몬의 성전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다”고 말했다.

박영진 목사의 사화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송정목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인정받는 일꾼’(딤후 2: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순신 장로(정병위원장)가 취임

목사 소개를 했다.

2부 취임예식은 남종성 목사(LA 디사이플교회/WEMA총회장) 사회로 박영진 목사(임시당회장)가 치리권 부여 및 공포, 취임패를 증정했으며 남종성 목사가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어 김지훈 목사가 취임사를 했으며, 제프리란 박사(클레어몬트 신학교 총장)과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KPCA총회장)가 격려사를, 오대식 목사(높은뜻정의교회)와 이경식 목사(클레어몬트 신학교 실천신학교수)가 축사하고 소프라노 최정원 재매가 축가를 불렀다.

이날 취임식은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학교 총장) 축도로 마쳤다.

김지훈 동양선교교회 6대 담임목사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와 심리학과(BA), 고려대학교대학원 문화사회심리학과(MA),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리프신학교(MA)를 졸업했으며, 현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교에서 박사과정(Ph.D)을 밟고 있다. 주요사역경력으로는 영세교회 교육전도사, 높은뜻정의교회 교육전도사 및 전임전도사, 예장통합 평북노회에서 목사안수, 높은뜻정의교회 부목사, 킹스웨이교회 협동목사, 동양선교교회 부목사를 역임했다.

(박준호 기자)



2017 또감사선교교회 VBS 가 히스패닉 그룹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Make a Fun factory” 주제

또감사선교교회 2017 VBS 참가학생 절반 히스패닉

2017 또감사선교교회 여름성경학교(VBS)가 “Make a Fun factory”라는 주제로 6월 9-11일 3일 동안 개최됐다.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타민족과 지역커뮤니티를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는 또감사선교교회는 특별히 2017년 VBS 홍보를 히스패닉 복음방송인 Ministerio El Poder Del Evangelio를 통해 시작했고 실제로 참석한 아이들 중 절반이상이 히스패닉 그룹으로 이뤄졌다. 올해 Play-Well TEKologies 엔지니어링팀과 함께 레고 캠프를 열어 지역커뮤니티의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VBS가 되도록 한 여름전도프로그램이었다.

THMC CM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민족 커뮤니티 아이들에게 유니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매주일 저녁 히스패닉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에도 꼭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매주일 히스패닉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주일저녁 5시 30분 M. Oscar Ovidio Rivera 목사가 섬기는 La voz del Tabernáculo와 함께 진행 중이다(1440 N. Spring Street, LA, CA 90012) 히스패닉 어린이 예배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P. Kimberly Kim(626-233-4538)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또감사선교교회)

또감사선교교회 ‘친구초청’ 간증집회

강사에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옥 목사)가 주최한 ‘친구초청’ 간증집회가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가 강사로 나선가운데 14일 오후 7시30분에 개최됐다. 최경옥 목사의 소개를 받고 강단에 오른 조혜련 집사는 자신의 지난 삶을 풀어갔으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들을 청중들에게 이야기했다. 조혜련 집사는 선배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의 기도도 교회에 출석하게 됐지만 세상에서 전해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과 출석한 교회에서 등록을 강요하는 듯 한 분위기가 부담이 돼 출석을 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집사는 이혼 후 1년반쯤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났으며 남편이 출석하고 있던 수서교회 방문요청, 그리고 교회에서 강요하지 않고 지

켜봐주며 신앙생활을 이끌어준 것,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금송아지 사건 설교가 당시 한변만 교회 나가보겠다고 한 것이 오늘날까지 다니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조 집사는 “성경말씀에 ‘너는 내 자녀’라는 말이 큰 힘이 됐고 가장 큰 백이 됐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며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읽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성경을 안 고 생활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들과 하루 성경 5장씩 읽는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루 5장을 읽되 한 장은 음성으로 녹음해 카톡방에 올려 공유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7월 ‘사랑의 책가방’ 후원 캠페인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책가방’ 후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후원 방법은 △물품(책가방/학용품)과 △후원금(50달러)으로 동참할 수 있다. 수표 보낼 곳은 한인가정상담소(3727 W.6th St. #320, LA, CA 90020)이며, 신용카드는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www.kfamla.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213)235-4868 jalee@kfamla.org 이재민 매니저

IKEN 한국어온라인학교(KECOS) 2017-2018 학생 모집

세계한국교육자총연합회(IKEN: 공동회장: 김성순, 박엘렌)은 2017-2018년 신학기를 맞아 KECOS 한국어온라인 학교를 시작한다. 한국어온라인코스 2017 가을학기는 8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2018 봄학기는 1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온라인한국어코스 등록은 www.ikeneducate.org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PayPal로 등록비 50달러를 내고 등록을 하면 배치고사를 통해 레벨(Level)을 정한 뒤 8월 15일부터 코스를 시작할 수 있다. 등록금은 한 학기당 300달러. ▲문의: (909)973-0449 김성순

도미니 목사 초청 건강한 가정 말씀집회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도미니 목사 초청 건강한 가정 말씀집회를 22일(토)에 개최한다. 일정은 오전 6시20분 버지중학교 오티토리움, 저녁 7시 라파엘트 교회 사무실 5층 소마교회. ▲문의: (323)788-2263정현기 목사, (213)220-2245인치훈 장로

또감사선교교회 박종호 성가사 초청 특별집회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옥 목사)는 박종호 성가사 초청 특별집회를 ‘초심’이라는 주제로 28일(금) 저녁 7시30분 개최한다. ▲문의: (323)225-9191

OC제일장로교회 부흥집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 부흥집회가 이전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사43:9)라는 주제로 21일(금)부터 23일(금)부터 25일(주)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21일(금) 저녁 7시30분, 24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30분, 25일(주일) 오전 8시30분, 10시30분 오후 12시30분. ▲문의: (714)891-2029

통일 포럼 토크쇼 및 통곡 기도회

그날까지 선교연합회는 통일 포럼 토크쇼 및 통곡기도회를 21일(금)과 23일(주일)에 개최한다. 일정은 21일(금) 오후 7시 30분(나성순복음교회), 23일(주) 오후 5시(나침반교회)이며 강사는 임창호 교수(고신대), 강철호 목사(새터교회 담임)이다. ▲문의: (949)297-3788

기쁜우리교회 여름말씀잔치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여름말씀잔치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28일(금)부터 30일(주)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28일(금) 오후 7시, 29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30일(주일) 오전 7시 30분, 9시, 11시, 오후6시이며 강사는 조정민 목사(CGN TV 사장, 온누리교회 부목사). 이번 집회에는 크로스오버 가수 임지는 자매가 특별출연한다. ▲문의: (818)662-0400



또감사선교교회에서 열린 친구초청 간증집회에서 강사로 초대된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가 간증을 한후 청중들과 찬양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목회: 오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목회: 오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pc.com Tel: (323)913-4499 /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영양목회: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5:30(월-토) Tel: (213)388-7101 / Fax: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목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영양목회: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 Fax: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a.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목회: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Tel: (949)854-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A Irvine, CA 90026 facebook.com/srs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영양목회: 오전 11:20 영양목회: 오후 1:20 영양목회(월-토): 오전 5:30(월-토)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목회: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통곡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통곡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환: 박스 전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이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주 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부: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금요일: 오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l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목회: 오전 2:00(대형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전 11:45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www.dhpc.org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 일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5:30 새벽기도회: 오전 7:30 Tel: (213)245-4090 /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6:00(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후 5:40(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org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전 11:45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수 요 예 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iv.com / e-mail: pastor@ia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청년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후 8:00 www.to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9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보수-진보 아우르는 한국교회 첫 연합체 출범

한교총·한교연, ‘한국기독교연합회’ 로 전격 통합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한교총이 지난 1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교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상을 밝힌 지 6개월 만에 첫 결실이다. 새 연합기관의 이름은 가칭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연)로, 통합이 마무리되면 한국교회사상 처음으로 진보와 보수 교단을 아우르는 연합체가 된다.	주요 교단과 한교연의 결합 구조
한교총 소속 15개 주요 교단장들은 13일 서울 서초구 웨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한교연과 통합해 한기연을 만들기로 했다. 정관은 이단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한기총이 채택했던 7·7개혁신관을 사용하기로 했다. 교단장들은 한기연의 상임회장단을 소속 교회가 1000개 이상인 교단의 장으로 구성하고 대표회장은 선거 없이 추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통합, 대신, 고신, 합동개혁,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	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의 교단장이 상임회장단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교연 범인을 그대로 사용키로 했고 지도력 공백 상태에 있는 한기총이 정상화되면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희 예장통합 총회장은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 및 고시영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장을 12일 만나 통합안에 전격 합의했다”면서 “한기연이 창립되면 명실공히 한국교회 주요교단이 함께하는 공교회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교연 임원회에서 전권을 위임받

아 통합안에 합의했다”면서 “누구든 한교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방해한다면 한국교회 공공의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은 다음 달 1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한기연 창립총회를 개최기로 했다. 정관, 창립선언문, 각 교단에 상정할 표준헌의안 등은 공동으로 준비한다.

예장합동과 기감도 참여

이번 통합의 최대성과는 연합기구에 소속돼 있지 않은 예장합동·고신·합신, NCKC예만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기감과 기독교한국무터회, 한기총 회원교단인 기하성 여의도순복음과 기침이 한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구세군대한본영까지 동참할 경우 한국교회 대부분 교단이 한기연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

다. 당장 오는 9월 주요교단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교회연합에 이견을 보였던 한교연의 체질도 주요 교단장들의 집단지도 체제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 한기총과의 통합도 성사시켜야 한다. 현재 한기총은 자칭 보혜사 김노아씨, 홍재철 박종선 목사 등 이단연루 의혹세력과 일부 군소교단의 영향력이 강하다. 한기총은 다음 달 말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는 데 그 결과에 따라 연합사업의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훈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은 “한교총이 범인을 독자적으로 설립할 수 있었는데도 한교연 법인을 사용키로 한 것은 또 다른 분열을 막기 위해서였다”면서 “이번 합의에는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전제로 한국교회의 연합을 더 이상 지연시켜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임시총회 후 한기총이 정상화되면 조건 없이 한기연에 합류할 것”이라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반드시 하나 됨을 이뤄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동회장, 이영훈(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유관재(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등 주요 교단장들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들 교단장이 대표하는 교단 소속 교회가 한국교회의 95%에 달한다”고 귀띔했다.

이어 “주요 교단장들은 한국교회 연합을 향한 대의에 한기총과 한교연이 함께해줄 기대하고 있다”며 “연합기구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화와 한기총 및 한교연 통합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성 부총회장은 “일부 군소교단과 이단 연루 세력이 한기총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대표회장이 선출되도록 돕겠다”면서 “한기총과 한교연이 잘 통합될 수 있도록 교단이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13일 서울 서초구 웨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 출범을 확정한다. 이종승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 총회장은 “이성희(예장통합) 김선규(예장합동) 총회장, 전병

의 이번 권징이 총회 결의 불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모든 노회원들의 공직이 정지돼 총무 선거 등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충청노회에선 정진모(한산제일교회) 목사가 차기 총무 후보로 출마했다.

총무 선거에는 정 목사 외에 노경수(광주왕성교회) 김정식(군산안디옥교회) 이석원(대전성도교회) 최우식(목포예순교회) 김영남(인천새소망교회)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달 20일 6명의 임후보자들을 심사한 결과 전원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했지만 5명만 총무 후보로 확정하고 정 목사에 대해선 보류했다.

김선규 총회장은 12일 “충청노회

가 김 목사에 대해 ‘공직 정지’만 결의한 것은 온전한 처리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다음 달 8일 총회 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긴급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회의 한 임원은 그러나 “최근 임원회에서 충청노회가 완벽하게 권징하지 않으면 정 목사를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 목사도 ‘공직 정지’에 따라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사립학교법을 핑계로 총장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밀어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단대책위원장 진용식(안산상록교회) 목사는 “교회들은 신천지에서 돌아온 청년이 이단상담을 통해 다시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며 “소속감을 잃어버린 청년들을 교회가 잘 품어야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제목을 보고 오타(誤打)인 줄 알았다. CCM 그룹 CPR이 지난달 30일 발매한 곡 ‘오진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이 노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2일 정도 기준 벅스뮤직과 네이버뮤직 등 각종 음원 사이트의 CCM 부문 1위에 랭크돼 있다. 한때 멜론 차트에서는 모든 장르를 포함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

다. 비기독교인들이 다수인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제목과 가사 때문이다. 가사의 일부다. ‘예수는 오지신 분 오지구요. 예수는 진리신 분 진리구요. 그의 능력만 만렘. 한계가 없으신 클라스. ㅇㅈ 범사에 그를 인정해주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최애되신 주님.’

오지다는 표준어 ‘오달지다’의 다른 표현으로 ‘허술한 데가 없이 아무지고 알차다’를 뜻한다. 만렘은 컴퓨터게임 용어다. 가장 높은 레벨을 의미합니다. ㅇㅈ은 인정(認定)을, 최애는 ‘가장 좋아하는’을, 클라스는 수준을 뜻한다. 모두 청소년들이 일상 대화와 인터넷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오지다’의 경우 인터넷게임을 통한 게임전문 BI가 상대방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오용하면서 퍼져기 시작했다.

“인권보호 가장한 동성애 조장·확산 안된다”

한국교회, 동성애자 쿼어축제 반대 1만여명 국민대회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의 쿼어 축제에 맞서 바른 성문화를 제시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 1만여명의 참석자들은 장대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동성애와 동성혼의 실체를 알렸다.

동성애쿼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대한문광장에서 영국대사관 입구까지 230m 구간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1부 예배에서 최나중 서울해오름교회 목사는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매독 등 성병에 쉽게 노출돼 있어 평균수명이 짧다”면서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장려하고 부추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그 전에 동성애라는 성증독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자”고 외쳤다.

이종승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 총회장도 “소수자는 정의를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서울시, 일부 국회의원들은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유독 동성애자들의 불법과 윤리·도덕 파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회장은 “동성애라는 죄는 밟지만 동성애자를 미워해선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자”고 강조했다.

2부 국민대회는 청년유원 문화연대 리우의 공연과 김일평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염안선 수동연세요양병원장, 탈동성애자 박진권씨 등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김선규 예장합동 총회장은 대회사에서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하는 쿼어축제에 반대한다”면서 “서울광장을 국제퀴

어축제장으로 굳히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쿼어축제를 열도록 허락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력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대한문을 출발해 서울경향로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까지 행진하며 동성애가 인간의 천부적 인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지개 현수막이 걸린 미 대사관 앞에선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존중하라”고 외쳤다.

이정숙(45·여)씨는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 두 딸과 함께 행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장준택 수원명성교회 부목사는 “쿼어축제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엔 에이즈 등 성병감염과 결혼제도 파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알리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

이윤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전 세계 240여개국 중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20여개국밖에 되지 않으며, 110개국은 오히려 불법으로 처벌까지 한다”면서 “한국교회가 동성애와 동성혼의 잘못된 성문화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장합신은 이날 ‘성별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만 있을 뿐입니다’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준비위는 올해 처음 행사장 주변에 25개 전시 부스를 설치했다. 전병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동회장과 소강석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은 현장에 참석해 시민들을 격려했다.

한국교회 인테그리티를 실천한다!

2017종교개혁500주년 서울성령대회 개최

2017종교개혁 500주년성령대회(대회장 소강석 목사) 주최, 사단법인 세계성령증앙합의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주관으로 2017종교개혁500주년 서울성령대회를 7월 12일 저녁 7시 30분 여의도순복음교회(당회장 이영훈 목사) 대성전에서 개최했다.

설교는 이수형 목사가 맡아 열왕기상 18장 42-4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받은 응답 눈으로 보기가치’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이수형 목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엘리야처럼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할 때 하나님의 결곡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며 “우리도 엘리야처럼 순바닥만한 구름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큰 확

신을 가지고 간구할 때 문제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고 강조했다.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는 지난 3월부터 포항, 춘천, 일산, 용인, 안양, 충주, 대구, 서울에서 ‘우리는 한국교회 인테그리티-정직, 청렴, 고결을 실천합니다’라는 주제로 성령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오는 10월 8일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성회 ‘2017종교개혁 500주년성령대회’를 올림피아에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제공·사단법인 세계성령증앙합의회)



2017종교개혁500주년 서울성령대회에서 이수형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예장합동 총무후보 5명...정진모 목사는 보류

김영우 목사 징계관련 충청노회 ‘공직정지’ 만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총회와 갈등을 빚어온 김영우(총신대 총장) 목사에 대한 노회의 권징이 총회 13대 총무 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예장합동 충청노회(노회장 허기성 목사)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김 목사에 대한 공직 정지를 결의했다. 예장합동은 2014년 제99회 총회와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 두 차례 ‘김 목사의 목사직과 공직 정지를 위한 권징절차 이행의 건’을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목사는 총신대와 관련, 총회의 지시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해온 점이 문제가 됐다.

충청노회는 그러나 목사직은 정지하지 않고 공직만 정지시켜 총회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총회는 김 목사에 대한 권징을 진행하지 않으면 ‘노회원의 총회 공직을 정지시키고 노회의 총대권을 5년간 정지시킬 것’이라고 통고한 상태다. 충청노회

청춘의 꿈 앓이간 신천지...벗어나서도 후유증 깊어

우울증·무기력증 호소하는 두 청년

“매사에 의욕이 안 생깁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사라졌어요.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도 신천지 사람들이 위협하는 악몽을 꾸곤 합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서 회심한 청년들이 토로하는 괴로움이다. 이들 청년은 신천지에 탈출해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회복되지 못한 채 무기력증과 우울증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역 근처 카페에서 신천지에서 전도조장까지 맡았다”며 “한때 신천지를 가족처럼 여겼고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내 모든 꿈을 바쳤다”고 말했다. 최씨는 신천지에서 회심한 지 1년 5개월 됐다.

최씨가 신천지를 처음 접한 것은 2014년 6월이었다. 대학생 영화동아리에서 캐릭터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해왔다. 그는 “영화와 관계없는 인간관계나 학교 공부에 대해 자제히 물었지만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씨는 이후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사람을 소개받아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그해 신천지 교리 공부라는 건 수개월 뒤에 알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카페에서 지난 9일 만난 김가희(가명·24·여)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신천지에 들어갔다. 그는 “2014년 6월 대학로에서 한 여대생이 뮤지컬 캐릭터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해달라며 접근했다”고 했다. 김씨는 당시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가족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고민 얘기를 하다가 상담을 잘한다는 사람을 소개 받았는데 성경공부하자는 얘기를 꺼냈다. 신천지의 전도방식이란 건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신천지에 발을 들여놓은 청년들은 대부분 시간을 신천지 포교에 썼다. 최씨는 매일 서너 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전도조장을 맡아 새벽 5시에 일어나 신천지 교회에 나갔고 이튿날 오전 2시에야 귀가했다. 식비를 받은 적은 없었고 밥 먹을 시간도 부족했다. 그는 “하루 종일 삼각김밥 하나만 먹은 적도 있었다”며 “신천지에 있을 동안 몸무게가 8kg이나 빠졌다”고 말했다.

김씨 역시 “신천지에선 교주 이만희가 신발을 한 번도 갈아 신지 않아서 밑바닥이 다 닳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 고생시키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고 전했다.

최씨와 김씨는 2015년 말쯤 회심

했다. 김씨는 그해 11월 신천지에서 회심한 사람의 글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읽고 의심을 품었다. 부모님께 이단상담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는 “상담을 받으며 다른 이단들과 신천지의 교리가 비슷하다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최씨 역시 “신천지가 개혁한글판 성경만 보게 하고 다른 번역본을 일절 읽지 못하게 한 이유를 2015년 10월 이단상담을 받으며 깨달았다”며 “신천지는 개혁한글판 특유의 성경구절 단어를 개위 맞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신천지가 이들 청년의 신앙에 끼친 해악은 너무나 컸다. 최씨는 “신천지가 진짜라 믿으며 모든 힘을 쏟았다”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잘해보고 싶어도 또 속을까 두려운 마음부터 생겼다”고 했다. 김씨는 모태신앙인이지만 요즘은 신앙이 거의 사라졌다. 그는 “교회에서 기도제목을 물어도 피상적으로만 답하게 된다. 사람들한테 마음을 여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최씨와 김씨는 최근 부모님의 설득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원래 다니던 교회에 정착하지 못해 다른 교회로 옮겼다. 최씨는 이전 교회에서 그가 돌아오는 걸 거부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김씨 역시 신천지에서 회심한 걸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그는 “기존 교회에서 편견을 갖고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볼까 무섭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교회가 이들을

mission 선교의 창 (82)

종교개혁과 선교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다. 개신교 탄생의 시발점인 이 때를 기념하는 대회들이 여기저기에서 열리고 있다. 중세 1000년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여명이 오기까지 종교개혁자들의 도전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얀 후스(Jan Hus)는 화형 당했다. 윌리엄 틴델(William Tyndale)도 정죄되고 화형 당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이단 선고 및 파문을 당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만일 루터마저 악의 세력에 희생되었다면 종교개혁은 상당한 차질을

후 땀방울로, 츠빙글리, 칼빈 등이 개혁을 완성해갔다. 개혁자들의 신학적 사상은 다섯 솔라(Five Solas)로 요약된다. Sola Scriptura(오직 성경), Solus Christus(오직 그리스도), Sola Gratia(오직 은혜), Sola Fide(오직 믿음), Soli Deo Gloria(오직 주께 영광)이다.

2. 종교개혁의 원인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에서 개혁자들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였다. 교회 타락의 시작은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 '종교적인 권위주의'로 계급화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개혁자들은 "교회권위가 성경권위

보다 우선한다"는 가톨릭교회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며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성경을 사제들만이 아니라 만민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개방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천주교회에는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성직자들은 독신제도로 인한 성적인 부패가 도를 넘었다. 면죄부를 파는 일을 비롯 성직매매가 성행했다. 또한 성호를 그을 때 악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성인(聖人)들을 숭배하는 등 온갖 미신이 난무하였다. 내적 요인은 더 근본적이었다.

루터는 후에 "다른 사람들은 생활을 공격했지만, 나는 교리를 공격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내용으로 성경과 전통을 다 강조하는 입장, 구원은 믿음에 인간의 행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얻는다는 공로 구원론, 천주교적 미사관, 사제의 축성 이후에 성찬의 요소들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transubstantiation) 화체설(化體說) 등이다.

산권 문제, 파당과 분쟁, 명예와 권세 등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더구나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2원론 가운데 사역은 극히 소수의 목회자들에게 의해 주도되고 있다. 다수의 평신도들은 스탠드 위의 관중처럼 사역자로 동원되되보다는 그들이 사역의 대상일 뿐이다. 루터는 만민제사장을 주장했다.

앞으로 요구되는 제 2의 종교개혁은 도덕적인 갱신보다 더 사역적인 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아직도 극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사역을 모든 성도들에게로 나누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사역의 주체로서 '선교적인 사명'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Form에서 Meaning으로 전환이다
이는 사제의 손에만 있던 말씀을 모든 이에게로 전해주었다
제2의 종교개혁은 사역을 성도들에게로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빚었을 것이다. 왜 저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종교개혁을 시도했는가? 그것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교회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인류사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물줄기를 타기 시작했다. 뜻 깊은 해를 맞이한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타임머신(Time Machine)을 타고 종교개혁의 그 때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암울했던 역사적 정황을 살피고 하나의 불꽃처럼 승화된 개혁자들의 희생을 기리며 제2의 종교개혁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1. 종교개혁의 전개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당시 교권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중세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 날이다. 그는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을 95개 조항으로 만들어 성당 벽에 붙이고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개신교(항거하는 자, Protestant) 즉, 지금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천년간의 중세를 끝내고 근대 유럽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보다 우선한다"는 가톨릭교회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며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성경을 사제들만이 아니라 만민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개방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천주교회에는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성직자들은 독신제도로 인한 성적인 부패가 도를 넘었다. 면죄부를 파는 일을 비롯 성직매매가 성행했다. 또한 성호를 그을 때 악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성인(聖人)들을 숭배하는 등 온갖 미신이 난무하였다. 내적 요인은 더 근본적이었다.

루터는 후에 "다른 사람들은 생활을 공격했지만, 나는 교리를 공격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내용으로 성경과 전통을 다 강조하는 입장, 구원은 믿음에 인간의 행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얻는다는 공로 구원론, 천주교적 미사관, 사제의 축성 이후에 성찬의 요소들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transubstantiation) 화체설(化體說) 등이다.

3. 종교 개혁자들의 선교이해

일반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선교가 없거나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이는 그들에게 복음의 외연 혹은 타 문화권에 대한 선교사상이 없어서인가? (No)아

이상에서 보듯 개혁자들은 선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개혁자들은 선교를 지리적 차원이 아닌 복음 안에서 교회 갱신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s) 박사의 이론에 비추면 그들은 E-0(동일 문화권의 교회 안), E-1(동일 문화권의 교회 밖)의 선교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19세기 빛나는 세계선교의 열매가 있기까지는 16세기 종교개혁이 하나의 뿌리가 되었다. 만일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개신교의 탄생은 물론 근대 선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4. 종교개혁이 요구되는 현대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선도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신부된 교회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야 한다. 현대 중세교회는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보다 더 썩어 버렸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어떠한가? 중세교회 정도는 아닐 지라도 교회가 속(俗)화 되어가고 있다는 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물량주의와 교권주의, 형식주의와 탈사적적인 이기주의를 말한다. 비록 시대와 상황의 차이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다를 지라도 성적인 문제, 세습 문제, 재

맺음 말

500년 전 종교개혁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혁신하였다. 중세의 교회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정치와 권력, 재력을 통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속주의 빠져 세상의 눈총을 받았다. 마틴 루터는 그런 부패한 교회를 향하여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이다. 그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Back to the Scripture)과 교회는 늘 새롭게 개혁(Reformation)되는 것이다.

루터의 외침은 현대의 교회와 선교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가 말씀에 기초한 끊임없는 자기갱신 속에서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는 성(聖)과 속(俗)의 이원론적인 구분과 생명력 없는 교권주의를 파괴해야 한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라면 누구나 사명자로 거듭나 민족과 열방을 향해 선교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회가 제 역할을 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성령의 충대는 사라지게 된다. 유럽교회를 보라. 요한 웨슬레의 말이 새롭다. "본질에는 일치될, 비 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jsong007@hanmail.net

선교 소식

이란 테헤란한인교회, 정부 박해로 쫓겨날 위기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 이란에서 유일한 복음주의 교회로 43년간 사역해온 테헤란한인교회(김병조 목사)가 최근 이란 정부의 압력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란 정부로부터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까지 받아 주권 및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테헤란한인교회는 로마가톨릭교회, 독일루터교회와 함께 이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외국인 종교기관 중 하나다.

13일 테헤란한인교회에 따르면 이란 종교성은 지난 2월 초 현재 사용 중인 곳에서 퇴거해 다른 종교시설로 가야 한다며 독일교회로 이주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독일교회는 입정한 건물이 아닌 독일루터교회 교단의 순수한 자산으로 등록돼 있다며 이주를 사실상 거부했다.

테헤란한인교회는 이란 정부에 독일교회의 거부 사실을 통보했고 교회가 예배를 드릴만한 다른 장소를 찾아달라고 이란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전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외국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구입해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란 정부에서 종교 시설

을 2월 다른 시설 알아보라며 현지 독일교회로 이주 명령
...독일교회 측은 난색 표명

을 마련해줘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대안도 없이 이전만 하라는 압박은 사실상 교회 문을 닫으라는 요구와 같다. 테헤란한인교회는 그동안 미국 북장로회가 세운 베드로교회를 입차해 사용했다.

이란 가운데 이란 정보부 관계자들은 지난 5월 29일 교회가 사용 중인 건물 내부와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명단을 제출하고 한국 국적자는 여권 사본, 이란 국적자는 이란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회 측은 "테헤란한인교회는 현지 실정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고 한인들을 위한 종교활동을 해왔다"며 "불법행위가 없는 데도 영장 없이 개인 사무실과 종교활동 장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명단 제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률상 개인정보를 제출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실정법 위반이기에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교회 신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초 비자가 만료된 담임목사의 비자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강제 추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 신자들과 교민들은 담임목사의 비자 연장 거부는 교회 설립 역사상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란 정부의 한인교회 압박 이유는 교인들 중에 이란 국적자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란인과 결혼한 교민들로 이란 정보국은 "그들은 한국 출신 이어도 이란 국적자다. 교회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수년 전부터 밝혀왔다.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은 시아파 외의 타종교 포교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자국민들의 종교 활동도 철저히 감시해왔다. 현지 이란인교회는 모두 폐쇄된 상황이며 지하교회도 극심한 감시를 받고 있다.

주이란 한국대사와 측은 이번 일과 관련해 12일 이란 정부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헤란한인교회는 1974년 8월 15일 창립대 한인들의 신앙 타전을 일구었다. 이란 전체 교인 300여명 중 3분의 1이 출석할 정도로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오후예배: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백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mvchurch.org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http://www.bethelchurc.org/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세백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mv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rcjl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org/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세백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저녁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백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 (3)



강성철 선교사



4) 디아스포라 교포교회 선교

1978년 해외교포문제연구소에서 "남미 이민 현실적 과제"란 기고에 실린 글 중에 브라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유일한 안식처 교회"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을 여기 옮겨본다.

-브라질 교포사회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크다. 이곳에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64년도이다. 현재는 12개가 세워져 있다. 서울농장에 있던 교회는 교포가 점차 썩파울로 이주함에 따라 자연히 없어지고 지금은 11개의 교회

현금한 돈을 브라질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도 한다....

1963년에 브라질에서 최초로 세워진 한국인 교포교회는 2017년 6월 2일 현재 47개 교포교회가 세워져 활동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은 나름대로 교회와 함께 브라질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고 다양한 선교를 동참하고 있다.

한결을 더 나아가 포어권 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처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단과 선교부를 통하여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 받아 온 120여 세대의 선교사와도 유대를 갖고 선교

훈 선교사, 김성준 선교사를 들 수 있으며, 여성선교사로 박광자 선교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정식으로 파송을 받았다.

3) 브라질 교단선교부 중심멤버로서 역할과 사명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의 특징은 처음부터 브라질 교단에 속하여 중심 멤버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한 것이다. 강희동 선교사, 이준희 선교사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 IPB(Igreja presbiteriana Brasil) 소속 목사로서, 문명철 선교사는 신학석사, 교학교육박사로서 브라질 감리교신학대학교수, 썬파울

1963년 첫 한인교회 출발 후 2017년 6월 현재 47개, 파송 선교사는 120여 세대 초창기 평신도, 여성이 정식파송, 교파초월 연합사역 활발, 80여 MK PK 사역현신

가 교민들의 안식처로 남아 있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몇 개 안되고 대개의 경우 남의 교회를 시간제로 빌려 쓰고 있다. 1백여명의 교인을 갖고 있는 교회로부터 500명 이상의 교인을 갖고 있는 큰 교회도 있다.

교회는 선교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이민 온 사람들의 안내 역할을 하며 교포 2세들의 교육장소로 활용되며 동포들의 친목센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민 초심자들은 미지의 브라질 생활을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다. 그들이 거주할 주택문제,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또한 일주일 내내 다른 민족 중에서 시달리며 노동과 사업에 지친 한인들은 일요일 날 이웃과 친지들을 교회에서 만남으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교회에는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서는 최근의 모국소식을 비롯하여 교포 상호간의 여러 가지 정보도 서로 교환하면서 그 하루는 진정 고국을 위한 날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교회는 정신적인 위안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실생활면에 있어서도 교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또한 예배에서

사역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부모 따라온 이민 1.5세와 2세 3세들 가운데 목회자와 선교사로 지원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브라질 한국인 선교사역의 특징

1)성령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진행된 선교사역

브라질 한국인선교는 성령에 의해 이끌어지는 선교임을 알 수 있다. 자의든 타의든 디아스포라 한인으로서 브라질에 정착한 이들은 생존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아야 했고 그 일을 위해 주어진 여건에 충실했는데 돌이켜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여호와이레로 만남, 나눔, 섬김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모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사역이 된 것이다.

2)평신도선교사와 여성선교사가 초창기 선교대열에 서 있다

브라질 한국인 선교에 특징은 초창기 선교에 평신도와 여성선교사가 정식으로 파송된 것이다 평신도 선교사로 장승호 선교사, 백영

로 메트로폴리탄대학교수, 메토디스타교육대학장, 썬파울로 브라질 감리교회를 시무하기도 했다.

4)교파를 초월한 디아스포라한인교회 연합사역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의 특징은 디아스포라 교회와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선교한 것이다. 그동안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한 사역을 소개하면 히아슈보수장교로 신학생 기숙사비 및 생활비보조를 위한 바자회, 북한 돕기 한기 급식운동, 방글라데시 빈민구제를 위한 모금운동, 히오 홍수로 인한 수재민 돕기 구제사역 등 각종 선교 및 구제행사에 장로교 성경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등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연합사역을 펼쳤으며 선교 문화 및 교민행사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5)1.5세, 2세, 3세들의 헌신자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의 특징은 MK(선교사자녀), PK(목사자녀)들이 헌신하여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80여명이 목회와 선교사역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kangsungchuel@gmail.com



헝가리 부다페스트

안녕하십니까? 평안하며 건강하십니까?

지난 한 달, 어떤 일이 가장 감사하였습니까? 저희는 고아원의 십대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빌4:5). 선교후원금에 대한 미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으로, 미션 파서블!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으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진 설명과 함께 저희 소식과 기도제목 드리겠습니다.

1)3년간 저희 교회 토요학교와 주일학교를 섬긴 "에스터"가 국제기독교 학교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니다. 헝가리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잠시 어린 이들에게 영어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졸업식 날 저희가 함께 가서 축하해주었고, 해외동포 장학금을 받아 한국의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2)사춘기 청소년 사역을 위해 기도해왔는데, 드디어 '고아원'의 청소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36명의 고아 중에 10여 명이 학교를 나가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해야할 지 기도합니다.

3) '콤플렉스 학교' 다섯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힘쓰려고 합니다. 장학금을 교장&교감에게 전달하자 종업식 날 직접 주기를 위해서 서로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업식 후 한 학생(졸단, 5학년)의 어머니가 자녀 돌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부다이 브리기'(6학년)가 세례를 받았습니 다. 이제 난독증을 많이 이겨내고 얼마나 성실한지, 감사!

5)'순회선교단'의 선교훈련생 7명이 한 주간 저희 교회에서 숙식을 하며 아웃리치를 하였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영성시간을 통해, 먼저 미션을 깨닫고 기도하며, 주 단위 루틴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주일: '쇼&빌라고샤그 개척교회' 예배와 주일 학교, 저녁에는 헝가리 현지 교회 방문 예배와 찬양!

월: '허타르 역 거리교회' 예배와 급식/콤플렉스

스 학교' 방문, 찬양사역

화: '남부역 거리교회' 예배와 급식, 이발사역/무지개 양로원' 방문, 예배와 공연사역(CCM, 스킷)

수: '살라쉬 공영주택가' '바쉬바르' '카폴라 티르' 세 곳에서 가정예배와 공연사역

목: '콤플렉스 학교' 종업식 참여하여 장학금 5명에게 수여/ 야노쉬 산, 등반기도

금: '고아원' 방문 예배와 공연사역, Craft 시간/ '회쉬 슬럼가' 가가호호 심방예배와, 공연사역

토: '토요학교' 에어로빅으로 건전한 체육시간(헝가리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 예지와 예은과 함께)



6)주일날은 오랜 CCC 형제인 Dr. 홍정인(서울대 교수) 부부가 방문하여 함께 급식사역을 섬겼습니다. 고아원에서 온 틴에이지들에게도 잠깐이나마 격려와 비전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그맣고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감동이 증폭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시편18:1).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물질들 하나님께 드려... 선교 후원해주심에 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주께서 그 헌금의 미션을 맡기셨으니...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God bless you!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서명희 드림.
revivalmissionhu@gmail.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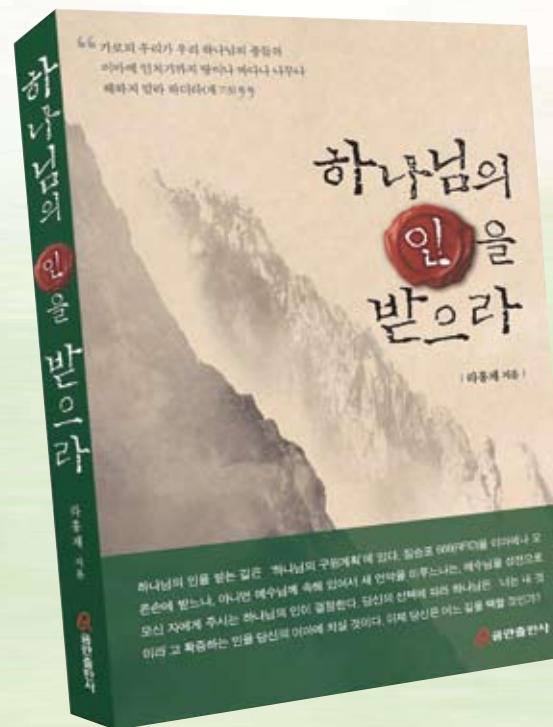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37)

7. 안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안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21)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우리는 지금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그리고 한인 기독교교육에 의한 비평적 사회학적 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그리고 지금은 한인 기독교교육이 비평적으로 관여해야 할 그 마지막 이슈로서 “학교교육(공교육)의 실패(Failure in Public Education)”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공교육)의 실패(Failure in Public Education)” 골자는 “기본적 학업력 성취의 실패”와 “개혁을 담보할 대안적 동력 제시 실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들은 이에 대해 한인 기독교 교육이 비평적으로 관여해야 할, 혹은 관여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에서는 “학교교육(공교

육과 인간 소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욱 더 심각해졌고, 어느 한 국가의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을 불안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으며, 전쟁이 보여준 잔혹한 인간 살육, 전 후의 비참하고 가난하고 황폐한 생활, 또 다른 전쟁, 특히 인류 전체를 말살 시킬 전쟁에 대한 공포, 내일의 소망을 볼 수 없는 사회 현실, 그 와중에도 변함없는 차별과 부정의 등을 겪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소외와 상실 이 실상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인간의 자유, 책임, 주체성을 회복하고 실존적 주체로서의 개인을 회복하고자 하는 실존철학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사는 철학사조로 대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미국사회에서도 물론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고, 이것이 교육

육 형태대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실존주의 교육이 극도로 학생 중심적이고, 극도로 학생의 주관에 의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상기반을 가지고 교육하기 보다는, 진리란 학생들이 실존적으로 선회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극도의 상대주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실행된 실존주의 교육도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간성이 소외되고 극한의 허무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사회 상황 속에서, 물질주의적 가치들과 관료주의적이고 기술적 진보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들을 중시하기 보다는 개인의 가치와 자아를 공고히 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성을 고민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은 실존주의 교육이 가지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존주의 교육은 개별성과 창조성에 방점 둔 학생 중심적 인본주의 커리큘럼 기초적 지식 기술 습득 실패, 정의사회구현커녕 상대주의와 개인주의의 더 강화

육)의 실패(Failure in Public Education)” 실패와 관련하여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온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과 재구성주의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과 재구성주의 교육은 공교육 실패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때로는 그 실패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과 재구성주의 교육 이후에도 기초적 학업력을 증진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거시적 동력이 되는 교육을 일구고자 하는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했고, 다른 교육적 대안들이 제시되거나 혹은 기존의 교육 모델들이 대안으로 재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존주의(Existentialism) 교육, 행동주의(Behaviorism) 교육, 전통주의(Traditionism) 교육, 그리고 기독교 전통주의(Christian Traditionalism)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실존주의 교육에 대해, 그리고 실존주의는 과연 기초적 학업력을 증진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거시적 동력이 되는 교육을 일구어 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존주의 교육의 바탕이 되는 “실존주의”라는 사조는 19세기 중엽 이후 근대 사회의 모순과 불의가 드러나면서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후세대라는 사회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실존주의라는 사조가 소위 “철학”으로 체계화되어 탄생된 계기는 잘 알려진 대로 제 1차 세계대전과 그것이 가져온 참혹한 비

에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실존주의 교육은 1960년 즈음을 전후로 미국 공교육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즉 기초적 학업력을 증진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거시적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실존주의 교육은 “진리란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실존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즉 어떠한 지식, 정보, 그리고 도덕률도 나 자신의 삶의 경험과 삶의 자리와 이에 대한 내적 경험에 의해서 해석되고 그 유의 미성 여부가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지적인 교육성과에 보다는 학생들을 자율적인 개인으로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개별성과 창조성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인위적인 조작 내지는 조건화는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실존주의 교육자들은 교사들이 학생을 친구처럼 대하고 상호 평등한 관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존주의 교육이 표방한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학생 중심적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선택사항들을 제공하되 개인적 관심사, 자각, 자기표현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너 자신의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전체 교육 커리큘럼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지요. 따라서 획일적인 교육을 피하고자 했으며 일률적인 평가시스템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커리큘럼은 “인본주의 커리큘럼(Humanistic Curriculum)”이라 불리었으며, 진보주의 교육사상이 최상으로 집약된 교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실존주의 교육은 기초적 학업력을 증진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거시적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이 되는 일에는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실제적 교육에서 실존주의 교육은 목적인 것처럼 개인들을 도와주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었습니다.

질서, 훈련, 그리고 일련의 교육 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개인의 상황과 경험에 따라 실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만을 교육의 성과로 삼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험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얻기 어려웠으며,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사회에서의 삶을 위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실존주의적인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거시적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주의와 개인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음 이야기에서는 “행동주의 교육”과 “전통주의 교육”을 살펴보고, 이 두 교육 모델들은 과연, 진보주의 교육, 재구성주의 교육, 그리고 실존주의 교육이 모두 실패한 “기본적 학업력 성취”와 “개혁을 담보할 대안적 동력 제시,” 이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는 교육 모델, 즉 “학교교육(공교육)의 실패(Failure in Public Education)”의 대안이 되는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사교트리아크리스천칼리지 교수)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더 분명해진 구원(롬10:19-21)찬521장

사도는 복음 안에 완성된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선지자들의 경고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19)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배운 은혜로 시기를 발동케 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둘째, 이사야의 경고를 통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20-21a).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숨은 사랑입니다. 셋째, 사도에게 보인 그의 사랑(21b)은 이스라엘로 더 큰 사랑에 응답하도록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민족적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의 의는 언제나 아쉬운 심판이 아니라 넉넉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화 남은 자의 구원(롬11:1-7)찬234장

남은 자의 구원이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원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을 자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첫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2-4).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그 분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둘

째, 은혜의 구원임을 전함으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셨습니다(5-6).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자가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됨을 증거하셨습니다. 오직 택한 자 곧, 겸손히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자만이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과 같은 노선입니다(6-7).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따라갑시다.

수 풍성한 복의 약속(롬11:8-12)찬456장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주시기 원하심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 땅에 신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선택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겨자씨나 누룩처럼 전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처럼 그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세

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려는 방편으로 이방인의 회심을 허락하셨으나 이것은 이방인이 그 특권을 얻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룹니다. 그 풍성한 복을 아는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목 이방인의 구원(롬11:13-24)찬384장

이방인의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기이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이방인에게 큰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주어진 것은 첫째,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교만함을 가리킵니다(18, 20). 특별한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은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워해야 합니다(20).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특권

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가나안 2세들에게 받은 은혜를 헛되이 다룰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머물러야 합니다(22). 원 감람나무에 이스라엘이 찍힌 까닭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금 이스라엘의 구원(롬11:25-28)찬428장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 하심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적용됐습니까? 첫째,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받는 것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25-26)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마로 연합해 한 새 이스라엘로서 구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한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자기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다는 것입니다. 둘째,

새 언약이 이뤄집니다(27). 일찍이 선지들을 통해 약속된 새 언약(렘31:31)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때가 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이스라엘을 주축으로 둘이 한 사람을 이룬 교회가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들어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 범세계적 복음을 전함에 힘써야 합니다.

토 만유의 주님(롬11:29-36)찬302장

택한 자의 구속의 신비를 안 사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완성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째, 그는 만물이 주께로 나옴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공급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본 것입니다. 그만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둘째, 이 구원을 친히 간섭하시고 이끄셔서 성취하심을 본 것입니다 열지랴워지랴하는 역사의 흐름과 인간의 변덕 많은 부패한 본성

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정말 기이합니다.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단단 저에서 그들을 얻어 영생의 풍성함을 순간순간 누리도록 그 하락으로 된 것을 알 때 전적으로 그 분께 위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결국 이 모든 만물의 마지막도 주께로 돌아감을 본 것입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는 것이 당연함을 보고 찬양합니다.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광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절은이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9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봉곡동 416-4(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토/일)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백제대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shinch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경익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매동 구왕성리33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강남 청암시 신산구 봉암동 415 www.yang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송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현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이해(상)



역자: 임지석 목사

[역자 주: 본 내용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Clavi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발행하는 “FORUM”(Volume 24, Number 1:Spring 2017)에 실린 글을 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번역한 것이다.]

1. Sola Fide(by faith alone)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성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적으로 생각하기에 다수의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은혜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은혜란 우리가 찬양하듯이 놀라운 것이며 심히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나의 자존이나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정신자세를 떠나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힘이 들지만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이는 중요한 성경적 진리로서 개혁주의자들이 ‘오직 믿음으로’에 근거하여 다시 찾고자 하는 일이다. 인간의 순종을 부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로마카톨릭교회가 주장하는 믿음에 비해서 개혁주의자들은 담대하게 언급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다.

이는 여러 성경구절에 나타나 있듯이 성경적인 것이며 예로 바울은 에베소서 2:8-9에서 말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와 유사한 정서는 빌립보서 3:9에서도 발견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이러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도록 하셨다. 믿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의를 붙잡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져도 그러한 믿음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어떤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의 여지는 더 이

‘오직 믿음으로’를 인용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사랑과 선행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긴다는 사실 알아야

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개혁주의자들은 이와 더불어 많은 다른 본문에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스러운 삶을 이루지 못하며 저주받은 몸으로 그분의 신적인 현존 앞에 설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

상 존재하지 않는다.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라.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준다”는 등의 말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생각들이 ‘값싼 은혜’로 이끌게 되는데 이는 오직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이든 좋다’는 삶의 자세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점이 로마카톨릭교회가 ‘오직 믿음으로’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주장

2. Sola Scriptura(by Scripture alone)

재미있는 오해다. ‘오직 말씀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라는 의미인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기 계시이며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좋은 삶을 이루는데 필요한 책인가? 아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많은 것들도 알아야 한다. 말씀이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통하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직 말씀으로’란 무슨 의미일까?

종교개혁기의 주제는 하나님, 세상, 그리스도, 죄, 구원, 교회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의 번역이나 해석을 결정한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종교개혁 이전 교회들은 성경이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다고 믿었으며 교회가 그 가르침을 결점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루터나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으로’를 확실한 자료로 믿었다.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은 교회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데 동의했으며 개신교 교회들은 교리문답(예: 하

이델베르그)와 신조(예: 벨직, 웨스트민스터)를 성경적 진리의 표준 요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이들의 해석을 말씀에 따라 실행이나 개정할

문화는 압도적으로 사람들의 욕구에 의한 쾌락주의로 흐르고 있다
우리 삶의 방법이나 영적 훈련이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가?
진정으로 ‘오직 말씀으로’를 따라 살고 있는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소규모 개신 교회들은 공적인 신조들의 채택을 피하는 가운데 성경 해석을 개인 신자들이나 성령의 인도에 맡기고 있다). 그리하여 “오직 말씀으로”는 성경이 한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믿는 모든 것과 완전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종류의 헌신”을 최종적인 권위로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인간들의 관습, 다수의견, 나이, 시대나 사람들의 생각, 조직, 조례, 또는 공적인 결정 등을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위에 놓아서는 안 된다(벨직신조 7조).

종교개혁과 그 이후로 거의 모든 유럽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교단마다 교리의 세밀한 부분을 두고 대화를 하거나 싸우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벌써 17세기에 이신론자나 소수의 진취적인 기

독교인들은 카톨릭과 개신교에 의해서 공인된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에 도전하여 철학과 과학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들은 말씀의 내용보다도 현대철학, 도덕 기관, 그리고 과학적인 세계관(초자연적인 기적의 가능성을 부정하는)을 신뢰하였다. 현대의 지적 문화가 최고의 권위를

하는 내용으로서 개혁주의자 Melancthon은 반응하기를 “우리의 반대자들은 우리가 선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무고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선행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보여준다”고 한다(1531년 Augsburg 신조). 개혁주의자들은 아고보서 2:14-26 같은 본문을 잘 인지하고 있는데 진실되며 살리는 믿음은 완전한 순종을 표현함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지기 위한 어떤 조건은 아니지만 의로워짐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James Payton은 “개혁을 잘못되게 이해하기”라는 저서에서 “칼빈을 비롯한 모든 개신교 개혁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믿음은 언제나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썼다. 믿음의 의는 선행을 이끌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선행을 이루어야 된다는 잘못된 현상에 대해 루터와 같이 오늘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의 구호를 전파한다. 바로 이 내용이 선행은 필요치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진 비기독교인적인 행위에 대한 양심에서 편해지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를 쉽게 인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사랑과 선행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긴다는 사실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한다.

(by Jeffrey Weima)

점에서 유익한 지혜를 제시하면서 무엇이 받아들일만하고 거절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관여하고 평가한다. 고백주의와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은 개혁주의 원리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오직 말씀으로’가 최종적인 권위이다. 이는 카이퍼(Kuyper), 바빙크(Bavinck), 그리고 북미주 개혁장로교회로 발전한 하란 개혁교회의 전통에 있어서도 부합되는 내용이다.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성경이 오직 결정한다는 ‘오직 말씀으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북미주 개혁장로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우는 것과 문화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점은 무엇인가? 모든 과목과 활동들이 카이퍼나 바빙크와 같이 아니면 오늘날의 관점으로 조정되는 신조나 말씀으로 새롭게 읽혀지는 가운데 성경적인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는가?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정의에 대한 말씀의 견해가 보수적이고 자유적인 개인주의, 진보적인 사회 실용적인 견해 아니면 다른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화는 압도적으로 사람들의 기본을 느끼는 욕구에 의한 쾌락주의로 흐르고 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이나 영적 훈련이 말씀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가? 진정으로 ‘오직 말씀으로’를 따라 살고 있는가?

(by John Cooper)

새책소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출판부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출판부는 고 이원상 목사의 생애와 목회의 모습을 담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두란노/300쪽)를 펴냈다.

와싱턴장로교회 담임 류응렬 목사는 서문을 통해 “본서는 고 이원상 목사의 삶과 목회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 씌어졌고 집필진은 고 이원상 목사를 존경하던 이들이다. 이 책을 통해 일생동안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결하게 불태운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읽는 이들에게는 신앙여정을 따르고 싶은 이정표를 발견하고 모든 크리스천이 걷고 있는 순례의 길에 조그만 길잡이가 되기 바란다”고 출간 목적을 기록했다.

“고등학교 시절은 영적 생활에 있어 성장과 도전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원상 목사는 돈을 벌어 하나님을 섬기려는 생각도 했고, 슈바이처 박사를 동경하며 의사가 되려는 꿈을 품은 적도 있었다. 의료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였다(종략)...” ‘어

고 이원상 목사의 생애와 목회 모습 담

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고민하는 청년 이원상 목사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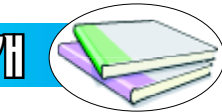
본서에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품에 안기 때까지의 전 생애의 모습이 총 6파트로 구분돼 수록돼있다. 첫 파트는 고 이원상 목사의 어린 시절부터 와싱턴장로교회 부임 전까지의 삶, 2파트에는 워싱턴장로교회 목회시절, 3파트는 은퇴이후의 사역, 4파트는 이원상 목사의 설교와 목회, 5파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고 이원상 목사에게 가족들이 드리는 추모글, 6파트는 30여명이 적은 ‘내가 본 이원상 목사님’에 관한 글이 수록돼 있다.

또한 손봉호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부디 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도전받아 제 2, 제 3의 이원상 목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그를 가장 올바르게 추모하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장 크게 공헌하는 것이다”라고 적극 본서를 추천했으며 이동원 목사, 이재훈 목사, 김정환 목사, 김은기 총장의 추천사도 수록돼 있다.

고 이상원 목사는 계명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미국 델러스신학교에서 신학을,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1977년 와싱턴중앙장로교회로 부임한 이후 26년간 진리를 전하며 이민사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성장시키고 2003년 은퇴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시드선교회를 통한 복음의 여정을 계속해오다 2016년 12월5일 주님 품에 안겼다.

책 구입은 미주 내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성자 기자)



목회학박사 과정 (D.Min.) 2017년 여름 특강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은 금번 TRACS인증을 감사드리며 목회학박사 과정으로 2017년 여름특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 목회 전향방의 사역을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절호의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일시: 2017년 7월 31일(월) - 8월 11일 (금)
- * 장소: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Cal Grad)
11277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3 Tel (714) 636-1722 Fax (714)636-1752
Email: info@cgsot.edu www.cgsot.edu 담당자: 송상현교수 (818) 522-6469

* 청강 (audit)을 원하시는 분은 과목당 \$50을 지불하시면 강의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교회 성장과 목회자 리더십 (PT 825/801) Church Growth & Pastoral Leadership 8월 1일(화) - 3일(목)	 정필도 목사	부산수영로교회를 개척하여 36년간 목회하며 부산에서 가장 큰교회로 성장시키고 은퇴. 원로목사로 전 세계를 다니며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라 (두란노),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두란노)
2	상관문화 속의 교회 재활성화 (PT 842) Church Revitalization 8월 4일(금)-8일(화)	 김은수 박사	일본 선교사로 섬기다가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후 은사를 따라 글러벌개혁주의 신학교를 설립하여 선교사와 목회자를 섬기고 있다
3	개혁주의 설교학 (PT 839) Reformed Preaching 8월 9일(수)-11일(금)	 서문장 박사	마틴 로이드 목사와 로마서 에베소서 강해등 83권의 설교집을 번역하고 개혁주의 설교를 통하여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다. 빌립보서 강해(청교도신앙사) 신앙의 초석(청교도신앙사)

본 신학교는 1969년에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세운 전통의 신학교로서 TRACS, BBPE, CHEA 의 정회원이며 SEVIS/ I-20를 발행하며 수시로 신입생을 받습니다. 본 학교의 프로그램: 학사(B.A.), 석사(M.A., M.Div.), 목회학 박사(D.Min.)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